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56776

２０１２年２月

敎育學碩士(漢文敎育)學位論文

西河 林椿의 尙州地域 流落期 漢詩 硏究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漢 文 敎 育 專 攻

金 貞 勳

西河 林椿의 尙州地域 流落期 漢詩 硏究

A Study on Seoha Im Chun's Chinese Poetry
During Yurakgi in Sangju Area

2012年 2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漢 文 敎 育 專 攻

金 貞 勳

西河 林椿의 尙州地域 流落期 漢詩 硏究

指 導 敎 授　權 純 烈

이 論文을 敎育學碩士(漢文敎育)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2011年 10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漢 文 敎 育 專 攻

金 貞 勳

金貞勳의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 査 委 員 長 朝鮮大學校 敎 授 이상우 印

審 査 委 員 朝鮮大學校 敎 授 이금순 印

審 査 委 員 朝鮮大學校 敎 授 권순열 印

2011年 12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目　　次

ABSTRACT ····· iii

Ⅰ. 序 論 ····· 1

1. 問題提起 및 硏究 目的 ····· 2

2. 硏究史 檢討와 硏究 方向 ····· 3

Ⅱ. 尙州地域 流落期 삶의 背景 ····· 5

1. 家系와 學問受業 ····· 5

2. 武臣亂 以前의 삶 ····· 7

3. 尙州地域에서의 活動과 背景 ····· 9

Ⅲ. 尙州地域에서의 交遊 ····· 23

1. 地域官僚와의 交遊 ····· 23

2. 從兄과의 交遊 ····· 26

3. 沙門과의 交遊 ····· 27

4. 中央政界 人物과의 交遊 ····· 30

Ⅳ. 尙州地域 流落期 漢詩의 思惟觀 ····· 32

1. 窮乏한 삶의 苦惱 ····· 32

2. 宦路에의 意志 ····· 36

3. 儒家的 世界 志向 ····· 40

Ⅴ. 尙州地域 流落期 漢詩의 特徵 ····· 44
1. 喪失感의 克復과 自矜心의 表出 ····· 44
2. 純粹藝術의 志向 ····· 45
3. 不遇와 感謝 ····· 47
4. 流落과 孤獨 ····· 52

Ⅵ. 結論 ····· 56

參考文獻 ····· 58

ABSTRACT

A Study on Seoha Im Chun's Chinese Poetry During Yurakgi in Sangju Area

Kim Chong Hoon

Adviser : Kwon Soon-yoel Litt.D.

Major in Sino-Korean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King Gwangjong of Goryeo period is the first king who introduced the national examination system to our country. Military staff were isolated in various aspects by King Ouijong's political system which respected literature and oppressed military service. As they were humiliated by even civil ministers, they arose two revolts(1170 and 1173). Therefore, great change occurred in literature as well as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Seoha Imchun was one of civil ministers who collapsed due to the revolts by military staff.

Imchun found a shelter in Yechon, his hometown, for safe living of his family. Then, he moved to Sangjoo, Gaeryong and Myogwang. He was poor enough to barely sustain life under the administration of millitary staff. However, he did not lose Confucian ambition to become a pubic officer.

Imchun stayed in the passages to Gaeryong, Chupungryong and Mt. Sokri to its west, and Mungyongsaejae, Sangjoo to its north in Myogwang, Gaeryong and Sunsan to its east and Seongjoo to its south. There he corresponded with friends while having an ambition to find the road to government service. However, his living was always not easy to make a living. In addition, as his ambition was not accepted, he

unburdened himself through writing poetry.

This study focused on some of his poetry written during Yurakgi: 25 pieces of Goyulsi, 1 piece of Gi and 1 piece of Gye.

The most of poetry by Seoha Imchun frankly presented his personal conditions according to the flow of consciousness. In contents. his poetry corresponded to his life. As he lived poorly and sadly for his whole life, he revealed his internal feeling honestly. In styles, he mainly wrote Goyulsi. It indicates that he refused to use modifiers or elaboration by respecting Chinese classics rather than sticking to conventions of poetry writing.

His poetry is characterized by prose and citation. It is both a disadvantage and an advantage. There are some cases that expletives or connectives were used in a prose or the number of letters increased in one line, or concepts and facts were described in a style of prose. It is not indirect and configurative presentation of emotion and facts. So, his poetry is monotonous and stiff.

He appropriately cited knowledge and historical facts he acquired when he was young from instruction of classical Chinese, which raised his poetry up. He was reputed as a literary person and poet who expressed his feeling frankly.

Therefore, it was discovered that he gave meaning to his life with confidence in his material of poetry while he made a poor living. Also he expressed his feelings frankly, not sticking to styles or rules of poetry writing. Such style of poetry can be considered as a new literary world.

In respect to Imchun's literary view, it was suggested it was an ancient culture of poetry and literature. This study reviewed Chinese poetry literature centering on friendship he had in temples or other places based on『Seohajib』during Yurakgi(1174~1181).

Ⅰ. 序 論

西河 林椿은 高麗時代 12세기 後半에 활약했던 문인이다. 그는 武臣 政權下에 文士들의 모임인 竹林高會의 構成員이었다. 또한 한국 漢文學史上 最初의 假傳인 <麴醇傳>과 <孔方傳>의 著者이기도 하다.

文人中心의 貴族門閥 社會에서 武人中心 社會로 交替된 鄭仲夫 亂(1170)과 金甫當 亂(1173)의 兩亂은 政治, 社會, 經濟, 文化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轉換點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충렬왕 이전까지 정치는 무인 중심으로 전개되고 사회는 혼탁하여 몽고의 침입을 받게 되었다.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무신들에 의해 산야로 숨어들은 문인들은 도학적 학문을 포기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충격은 漢文學史에서도 나타나는데, 김태준은 "당시 사림(士林)의 풍상(風霜)을 보면 사문(沙門)에 도닉(逃匿)하거나 산수(山水)에 방랑하여 세사(世事)를 망각코자 하면서도, 시인묵객(詩人墨客)은 도리어 이때에 융성한 것은 이조의 시대와 같다.[1]"고 하였다. 당시 무인정권 아래에서 '강좌칠현'과 같은 산림 은거 학자들이 문학에 치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무인정권의 시대에 고단한 삶을 영위한 임춘의 문학은 강좌칠현의 문학과 軌를 같이 하였다. 그렇기에 林椿의 文學觀을 古文을 主唱하였다고 일컫는다. 그러나 임춘의 문집인 『서하선생문집』이 사후에 이인로에 의해서 유고를 수집하여 편찬되었기에 그의 행적과 작품에 대한 창작배경과 시기에 대해서 추론하기가 매우 난해하다. 특히 임춘 문학에 있어서 백미로 일컬어지는 假傳體 作品도 어느 時期에 창작되었는지에 대한 明確한 推論을 할 수 없다.

이처럼 고려 무신란 이후의 문인들에 대한 행적과 그들의 문학적 세계관에 대한 추론은 매우 어렵고 至難한 문제이다. 강좌칠현인 吳世才·林椿·李仁老·趙通·皇甫抗·咸淳·李湛之 등의 삶을 추론하면 당대의 시대적 환경과 문학적 성취 양상을 더 면밀히 살펴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강좌칠현의 한 인물인 임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피고자 한다.

---

1) 金台俊, 『朝鮮漢文學史』, 朝鮮語文學會, 1931, p.63.

1. 問題提起 및 硏究 目的

高麗時代 文風 形成은 제4대 光宗(949~975)으로부터 시작되었다. 光宗은 貴族門閥 文臣들을 排除하기 위한 방법으로 科擧制度를 導入하였다. 이 制度를 定하고 實力 있는 新興 士大夫를 選拔하여 國家體裁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이 광종의 理想이었다. 이에 광종은 고려에 사신으로 왔던 中國 後周사람인 雙冀를 歸化시켜 翰林學士 文臣으로 登用하고 선진 문화를 수용하여 王權을 中心으로 國家體裁를 强化하고자 하였다.

과거제도는 文臣을 中心으로 한 崇文抑武의 政治體裁를 공고히 하게 되어 武臣들의 소외감을 불렀다. 급기야 무신들은 人間的인 侮蔑까지 받게 되었다. 이로써 武臣들의 不平, 不滿은 集團的인 實力行使로 이어지게 되었다. 鄭仲夫가 武臣 亂(1170)을 일으키자 문인들은 상대적으로 直接的인 滅門之禍의 피해를 당하였다. 이어서 金甫當이 毅宗 復位 運動(1173)을 외치며 난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였다.

이러한 1,2차 무신란을 당하자 문신들은 山野로 도피하여 삶을 영위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西河 林椿은 高麗時代 貴族 家門 後裔로 상당한 충격과 피해를 입었다. 임춘은 더 이상 開京에서 生活하며 견디기 어렵게 되자 家族의 生計와 生命의 安全을 위하여 江南으로 家族과 함께 避身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 즉 醴泉·尙州·開寧地域을 轉轉하면서 삶을 영위하였다.

한문학에서 평자들이 騷人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근심을 읊는 시인을 말하고 시대의 민심을 읊는 시인은 風人이라 한다. 騷人과 風人은 따로 구별하지만 이 두 가지를 아우른 시인이야말로 최상으로 평가한다. 바로 임춘이 강남 지역 유락기에 있을 때야말로 이러한 풍인과 소인의 양상을 더욱 단단하게 구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임춘의 문학 연구에서 무신란 이후의 행적을 살펴본다면, 당시의 시대적 문제를 이해하고 당대 문인들의 문학적 성취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무신란 이후 임춘이 流落하였던 時期 중에서 상주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서의 삶(1174~1181)을 체계적으로 살피고 아울러 그의 詩文學의 특징을 추론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硏究史 檢討와 硏究 方向

高麗時代에 個人의 文集을 남긴 사람은 林椿의『西河集』과 李奎報의『東國李相國集』등 손으로 꼽을 수 있다.『西河集』은 靑道 雲文寺에서 1713년 印澹 스님이 꿈에 啓示를 받고, 若耶溪 石壁에 묻힌 것을 發掘했다. 그 속에는『西河集』1질과 면경, 옥구슬이 들어 있었고, 高麗 때 僧侶 澹印이 묻었다고 表記되어 있었다. 다행히 500餘年의 歲月이 지나 後孫에게 傳해져서 注目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임춘의 문학적 재능은 이인로와 버금갔으나 그에 대한 관심은 당시에 크게 조명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한 理由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澹印'이라는 승려가 秘藏한 文集이 肅宗朝 때, '印澹'이라는 승려에 의해 現夢 發掘(1713)되기 前까지 西河 文集이 널리 알려지지 않음으로써 朝鮮朝 文人, 批評家들의 關心을 끌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現代 漢文學 硏究가 本格化된 以後에도 林椿은 問題의 作家로 인식되어 권내의 人物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2)]

林椿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과 硏究는 20세기에 들어서야 시작되었다. 이 연구들의 특징을 연도별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임춘에 대한 연구는 1930년대 金台俊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本格的인 硏究라기보다는 林椿의 詩文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이다. 이후 本格的인 硏究는 60년대 後半 李東歡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동환은 竹林高會 硏究를 發表한데 이어, 70년대 後半「林椿論」을 통해, 그의 詩를 本格的으로 考察하였다. 이는 처음으로 林椿이 처해 있던 時代的, 社會的 狀況을 통해 고찰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80년대 初는 金乾坤에 의해서 그의 生涯와 詩世界를 관련시켜 理解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過程에서 文學論이 部分的으로 論意되었으나, 이는 作家論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연구라고 하겠다. 80년대 後半에 와서 沈浩澤에 의해 그의 文學論에 焦點을 맞춘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는 임춘의 작품과 관련시켜 文學論과 文學의 位相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90년대에는 尹用植에 의해 林椿에 대한 綜合的인 硏究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李

2) 沈浩澤,「高麗中期 文學論 硏究- 林椿 李仁老 李奎報 崔滋를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pp.57~58 참조.

東喆은 林椿의『西河集』에 收錄된 詩 145편 199首를 主題別로 類型化하여 精密하게 分析을 하였다. 그리고 安賢靜은 思想的 論意를 통해 林椿의 '氣'에 대한 思考가 性理學의 氣論과 類似하다고 推論하고 있다. 그 밖에 孫政仁은 林椿이 散文性의 漢詩를 쓸 수밖에 없었던 當爲性에 대해 抒述하였다. 또한 林椿의 隱顯觀은 儒學者들의 隱顯觀과 脈을 같이한다고 파악하고 있다.[3)]

이제까지 연구된 논문들은 임춘의 문학론과 더불어 문학 형성 배경론에 치우쳐 있다. 즉 총체적 연구물들이 중심이다. 그러나 임춘의 상주 유락기에 창작된 다수의 작품에서 분석할 수 있는 삶의 의식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논외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논의로 말미암아 임춘의 연구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첫째, 상주유락기의 삶과 관련지으면『西河集』作品 중에「杖劒行」,「小林寺重修記」,「足庵記」,「妙光寺十六聖象會衆記」등은 創作 年度를 分明히 밝힐 수 있다. 둘째,「杖劒行」,「妙光寺十六聖象會衆記」,「次韻資福寺留題」,「九月五日遊龍興寺」,「眉叟訪予於開寧以鵝梨旨酒爲餉作詩射之」등은 現存하는 醴泉, 尙州, 開寧, 妙光地方의 寺刹 名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先行 硏究者들은 이 작품들의 지명에 대해 不明처리하거나, 地名을 중국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환언하면, 先學 硏究者들은 西河 林椿이 江南으로 避難을 定한 具體的인 논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西河의 일생을 일별해 보면, 강남으로 피신했던 궁핍한 삶은 문학적 이상과 아울러 그의 내재적 사유관을 추론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本 硏究에서는 西河 林椿이 江南 避難期를 유락기로 규정하고 京畿 湍洲 紺岳山으로 돌아오기 前까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즉 江南 流落期의 流落地, 流落地 주변의 寺刹, 交遊樣相과 아울러 유락지에서 창작한 詩文學을 사유관과 관련지어 추론해 보고 그의 시적세계가 갖는 특징을 考察하는 것이 그것이다. 아울러 西河 林椿의 상주지역 流落地의 생활을 재구하여 작품의 지명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그간의 오류를 바로 잡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3) 林茂花,「林椿詩의 恨 硏究」, 안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p.2~3 참조.

Ⅱ. 尙州地域 流落期 삶의 背景

西河 林椿의 開京 生活은 무신란 이후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다. 開國功臣의 後裔라는 門閥도 文章家門이라는 名譽도 林椿 家族의 生計와 生命의 安全을 지키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先代로부터 물려받은 功陰田마저도 兵士들에게 빼앗겼다. 이 때문에 西河 林椿은 生命의 威脅과 生計對策이 漠然하게 되어 고향 醴泉[4]으로 流落地를 選擇할 수밖에 없었다.

이 當時의 文士들도 糊口와 生命의 保障을 爲하여 江湖에 流落하거나 山林에 隱居, 또는 入山 逃避하여 僧侶가 되어서 後日을 圖謀하였다. 生計對策이 漠然해진 林椿은 家族과 함께 開京을 떠날 수밖에 없는 形便에 處하였다. 따라서 江南으로 流落의 길을 떠났으며 이때부터 切迫하고 困窮한 生活은 改善되지 않았다.

1. 家系와 學問受業

林椿의 字는 耆之, 또는 大年이고, 號는 西河이며, 本貫은 醴泉이다. 우선 家門을 살펴보면, 東國 林氏의 始祖인 林八扱은 中國의 唐나라 때 翰林學士를 지내다가 讒訴를 당하자 이를 避하여, 우리나라로 온 인물이다. 新羅 敬順王(927~935在位) 때에 이르러 吏部尙書를 歷任하고 平澤에 落鄕하여 定着하였는데 同祖異貫으로 後孫이 分籍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醴泉 林氏도 新羅 中央 貴族의 後裔로 그 一派가 醴泉에 定着한 것으로 보인다.[5]

新羅 敬順王朝에 벼슬을 하였는데, 戰功으로 錦城君에 奉해졌고, 諡號는 忠節이다. 이로부터 代代로 벼슬을 하였으며 林椿의 6代祖 季美는 光祿大夫 保安君이었으며 曾祖 이름은 彦인데 侍郞으로 睿宗 때 女眞이 雄州를 포위하자 尹瓘, 吳延寵, 崔弘正 等과 더불어 平定하였다. 祖의 이름은 仲幹으로 平章事를 지냈으며, 父親인 光庇는 尙書였고, 伯父인 宗庇는 學士였으며 叔父인 民庇는 名臣이었다.[6]

---

4) 林椿은 출생이 불분명하나 醴泉이 관향이므로 '고향 예천'이라 한다.

5) 金奉均, 「開心寺址 五層石塔 記文 硏究」, 『松園先生傘壽紀念論文集』, 1997, pp.347~348 참조.

西河 林椿의 生沒年代는 확실하지는 않으나, 毅宗初(1148)에 태어나서 明宗(1186) 때인 39歲에 죽은 것으로 보인다. 林椿은 원래 開國功臣의 後裔로 國家로부터 상당한 永世賜牌의 땅을 받았던 勳閥仕宦의 집에서 태어났다. 어린 時節은 경제적 어려움 없이 學業에만 열중할 수 있어서 6, 7歲 때 이미 百家書를 두루 읽고 學問의 世界에 나아갈 수 있었다.[7]

斯文信未喪　　이 글이 참으로 없어지지 않아야만
乃知天意惜　　하늘 뜻이 애석함을 알게 되리.
危雖無輟業　　위태로워도 공부는 그만 둘 수 없어
家傳杜預癖　　집에는 杜預의 書癖을 전하였네.
胸呑萬卷書　　가슴엔 만권의 책을 삼키었고
筆可千人敵　　붓으론 천명을 대적할 수 있었네.

<贈皇甫兄弟(황보형제에게 줌)>[8]

弄筆成推幾痤土　　붓 뭉치를 몇 번이나 땅에 묻었던가
年來大鹿旋看聚　　근래에 큰 상자에 모아 둔 것을 점검하니
盡將衣帛書後鍊　　모두 비단에다 쓴 뒤에 鍛鍊된 것인데
豈獨段勤窮穀楮　　어찌 오직 종이에만 다 썼으랴!
羲獻風流故自得　　王羲之와 王獻之의 풍류를 터득하였고
胡鍾閾域已曾覩　　胡昭와 鍾繇의 境地를 이미 엿 보았네.

<眉叟見和復用前韻>[9]

임춘은 학문에 정진하는 길만이 세상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그리고 있다. 위태로운 세상 속에서도 학문을 그칠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이미 영민함을 보였다. "일곱 살에 六甲을 외웠고, 비록 민첩한 재주는 없

6)「高麗西河林公行狀」,『西河集』, pp.368~369.
7) 呂運弼, 「林椿의 生涯에 대한 再檢討」, 『한국한시연구』 4, 한국한시학회, 1996, pp.204~205 참조.
8)『西河集』第1卷.
9)『西河集』第3卷.

었으나 3년에 經書 한권을 통달하였으니, 學問에 대한 부지런함에 있어서 날을 새며, 붓 들기를 멈추지 않았다."[10]고 한다. 이런 才質은 伯父인 學士 宗庇의 學問의 世界를 따르고, 본받고자 하였기에 더욱 다듬어졌다고 볼 수 있다.[11] 그는 이후에 『性理宗會』 十篇과 『三才象數之學』 二十篇[12]을 著述한 바가 있다. 임춘은 글씨에 대해서도 매우 정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시를 통해서 보면, 오랜 수련을 통하여 스스로 二王을 자득하였음을 드러내고 있다.

2. 武臣亂 以前의 삶

西河 林椿은 武臣亂이 일어나기 前에 이미 科擧試驗을 두 번이나 실패했다고 한다. 이때 그의 아버지가 門蔭으로 벼슬길에 나서기를 여러 차례 强要하였으나, 그렇게 進出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13] 立身行道에 대한 포부를 지닌 林椿이었기에 벼슬길에 나아가는 問題는 重要했겠지만, 名門의 後裔로서 自負心을 지닌 그로서는 自己의 能力을 立證하고 떳떳하게 나아가고자 한 것이다.

이 點에 대해 林椿은 차라리 儒者로서 몸을 그르칠지언정 門蔭에 힘입어 榮華로워지기를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라고 했다.[14] 이러한 自負心과 自身의 能力에 대한 過信은 때로 傲慢과 獨善으로 흐르고 말았다. 어려서부터 性品이 倨慢하여 남에게 미움을 받은 林椿은[15] 그 傲慢한 性格 탓에 20歲 무렵에 이미 남들로부터 "恃才傲物"이라는 評判을 들었고, 誹謗과 嫉視를 받았다.

林椿도 이러한 自身의 性格을 두고 스스로 "疎狂謬戾"라고 할 정도였으니, 그

---

10) 『西河集』, 「上李常侍知命啓」. "七歲誦六甲 雖無敏悟之才 三年通一經 頗有辛勤之學 焚膏以繼 下筆不休".
11) 金應煥, 「林椿의 詩 世界 考察」, 『한양어문연구』 5집, 한국언어문화학회, 1987, p.7.
12) 『性理宗會』와 『三才象數之學』은 失傳되어 어떤 내용의 책인지 알 수 없다. 다만 性命에 관한 내용과 周易의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13) 『西河集』 第4卷, 「與王若疇書」 참조.
14) 『西河集』 第6卷. "寧誤身於儒冠 恥藉榮於門蔭".
15) 『西河集』 第4卷, 「與湛之書」. "雖少性倨慢 爲人所疾".

程度를 斟酌할 수 있다. 그는 自身의 性格을 두고 疎狂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쉽게 고치지 못하였다.

> 저 자신이 疎狂(言行이 거칠고 常規에 어긋남)하고 謬戾(비틀려 어그러짐)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對象이 되기 때문에 …<中略>… 제 自身을 생각해 보니 이미 이 시대의 치욕과 비웃음을 받아서 마침내 버려진 물건이 되었습니다.[16]

이것을 통해 보면, 그 自身이 생각하기에도 言行이 몹시 거칠고 行動이 常規에 벗어나 있었던 것 같다. 그러기에 사람들로부터 "近世에 林椿이라는 詩人이 재주만 믿고 傲慢하여, 마침내 급제 한번 하지 못하고 困窮하게 굶주리다 죽고 말았다."[17]는 譏評을 받았던 것이다.

林椿은 자신의 實力을 誇示하기 위해 詩作에 있어 무수한 漢籍에서 난삽한 故事들을 자주 사용하였다. 그래서 임춘의 시는 過去의 典籍들을 涉獵하지 않고서는 理解하기가 힘들다. 임춘은 이러한 詩作 방법을 최선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시작에 능한 자신의 實力이 뛰어나다고 自負하였으나 科擧에 두 번이나 落榜하였다. 한편 그는 蔭敍로도 벼슬이 可能했지만 그것을 구태여 擇하지는 않았다.

> 嘐嘐하게 行實을 상고하니 碌碌하여 기특한 것이 없으므로, 차라리 儒冠으로 몸을 그르칠지언정 門蔭에 榮華를 의지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습니다.[18]

또 東文選에 실린 林宗庇의 詩인 「和」를 보면, "임금님 은혜는 따뜻하기 봄 같으니, 형제가 이어서 옥당의 사람 되었네."라고 하였는데 이는 門蔭을 통해서도 벼슬을 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林椿은 門蔭으로 벼슬을 할 수 있었으나, 이를 恥辱으로 생각하였다. 그 當時 文章으로 開京을 뒤흔들었던 임춘의 天賦

---

16) 『西河集』 第4卷, 「答朴仁碩書」. "豈以僕疎狂謬戾…<中略>…僕自念旣取當世 謬笑而卒爲棄物矣".

17) 『東國李相國集』 卷26, 「上閔上侍滉書」. "近世有詩人林椿者 恃才傲物 竟不登一第 至窮餓而死".

18) 『西河集』, 「上吳郎中啓」. "嘐嘐夷考行 碌碌未月寄 寧誤身於儒冠 恥籍榮於門蔭 謀之至拙".

的인 自矜心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林椿은 落榜에도 불구하고 自信感을 잃거나 그것을 羞恥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는 林椿이 科擧에서 文章과 自己가 志向하는 文章과는 판단가치 基準上 別個의 것으로 自覺하고, 前者에 對한 後者의 優越性에 確信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19]

3. 尙州地域에서의 活動과 背景

武臣亂이 일어나자 亂을 避하기 위해 開京에서 親戚, 知人에게 의지하여 5年間을 隱身하였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外面을 當하자, 江南으로 避身하여 困窮하고도 慘愴한 流落期 生活을 시작하였다. 當時의 참담했던 形便을 다음의 글에서 살펴볼 수 있다.

> 박복한 나는 亂을 만나 엎어지고 넘어지고 숨고 깊이 엎드려 남에게 구제를 청한 것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개나 돼지로 생각하고 돌보아 주지 않아 서울에 거주한 지 5년이 되었으나 굶주림과 추위가 더욱 심하였고 친척까지도 방문 하는 자가 없어 가족을 이끌고 동쪽으로 갔습니다.[20]

林椿은 1차, 2차의 武臣亂을 무사히 넘겼으나 生命의 威脅과 家族의 生計 對策이 漠然하여 1174년 여름에 家族과 함께 流落의 길을 떠났다. 江南 故鄕 醴泉을 향해, 站驛制가 발달한 高麗時代의 驛傳系統은 전국에 펼쳐 있는 길 中에 廣州道[21]를 利用하였다. 그래서 秋風, 尙州, 醴泉으로 移轉하게 되었고, 自身의 悔恨을 「杖劒行」 詩 한 首에 吐露하였다. 「杖劒行」은 스스로 주석하여 말하기를 “갑오년(1174) 여름에 강남으로 피신하였는데, 유랑하는 탄식을 많이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장단가를 짓고 「杖劒行」이라 하였다.”[22]고 하였다.

---

19) 金應煥, 前揭論文, pp.7~8 참조.
20) 『西河集』 第4卷, 「與洪校書書」. “僕自遭難 跋前躓後 隱匿竄伏 投於人而求濟者數矣 皆以僥遇之而不顧 故居京師凡五載 飢寒益甚 至親戚無有納門者 乃挈家而東焉”.
21) 金庠基, 『新編 高麗時代史』, 서울대 출판부, 2006, p.266.
22) 「杖劒行(甲午年夏 避地江南 頗有流離之歎 因賦長短歌 命之曰杖劍行)」.

骯髒六尺身　　꼿꼿한 여섯 자의 몸으로
一落乾坤內　　한번 乾坤안에 떨어졌네.
桑弧蓬矢射四方　　桑弧의 蓬矢로 사방을 쏘았듯
男兒有膽如斗大　　男兒의 지닌 담, 큰 말과 같아라.
況有光風吹　　더욱이 狂風이 휘몰아쳐
波濤搖四海　　파도는 四海를 뒤흔들었겠다.
蛟龍魚鼈皆未安　　蛟龍과 魚鼈이 모두 不安하여
出穴動蕩失所在　　집 나와 헤매다가 살 곳을 잃었다.
時無豪傑士　　豪傑의 선비도 없었으니
誰赴功名會　　그 뉘가 功名의 모임에 줄달음 칠건가?
嗟哉我若匏瓜繫　　아 ! 나는 매달린 匏瓜와 같아서
揮斥難窮八極外　　어렵고 곤궁한 八極 밖으로 쫓겨났네.
長安塵土中　　서울의 塵土 속에서
高枕臥五載　　높은 베개 베고 五年을 살았는데.
恒飢已變顔色黧　　늘 굶주려서 얼굴이 검게 변했으나
牢落枯腸千卷書　　千卷의 책으로 메마른 창자를 달래었네.
及骭亦足溫　　정강이뼈만 따뜻하면 만족하고
滿腹不願餘　　배만 부르면 남은 願은 없어라.
可笑文章不直錢　　가소롭다 문장 해 봐야 맞돈 한 푼 못 받는데
萬乘何會讀子虛　　萬乘天子가 어찌 子虛賦를 읽었다던가?
紛紛世上鄙夫輩　　어지러운 이 세상 더러운 무리들은
砥痔猶得三十車　　치질 핥고 30수레 얻었다네.
我慾唾面去　　낯짝에 침 뱉고 떠나련다
浩然賦歸歟　　浩然히 이 글 짓고 떠나온 거다.
休向閭閻老一身　　閭閻에 발 끊은 늙은 이 몸은
如籠中鳥池中魚　　장 속에 갇힌 새요, 못 속에 박힌 고기여라.
盡室萬里行　　온 집은 만 리 밖에 두고서
蕭蕭日疋驢　　쓸쓸히 나귀 한 필로 떠나왔네.
家山急赴秋風至　　고향 산 추풍[23]에 다 달아
蓴羹一杯方有味　　순채국 술 한 잔이 제 맛이어라.
遲遲回首望中原　　머뭇거리며 머리 돌려 개경을 바라보니
可憐久作風波地　　풍파의 땅 그대로인 것 가련하구나.

23)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과 경북 김천시 봉산면의 경계에 있는 地名.

黃鷄夜鳴非惡聲	黃鷄가 밤에 울어도 나쁜 소리 아니니
起舞自有英雄志	일어나 춤추자! 英雄의 뜻 때다.
誰言婦女不勝衣	누가 말했는가? 부녀가 많은 옷 못 입는다고
長策雄謀人莫知	훌륭한 계책 웅대한 지략 사람들은 모르네.
作鎚誤擊秦	철퇴를 만들어 잘못 秦王을 공격했다가
脫身遊下丕	몸을 피해 하비에 숨었었네.
從容跪授圮橋履	조용히 무릎 꿇고 흙다리에서 신을 주웠으니
會須不後老人期	老人의 기약을 뒤로 할 수 없었네.
笑彼拔山力	우습구나! 저 힘센 項羽도
捕取等嬰兒	어린애가 붙잡힌 격이 되었으니.
龍顔隆準一相遇	용 얼굴에 오뚝한 콧등 한번 만나고서
萬戶封侯帝者師	萬戶의 封侯에 帝王의 스승 되었었네.
丈夫事業固如是	丈夫의 사업은 참으로 이러해야지
何爲乞米還遭	어찌 쌀 동냥으로 웃음거리 살거냐?
一葦江之陽	조각배 한척으로 강의 양지쪽에서
歸來宿舂粮	돌아와 묵으면서 양식 방아를 찧네.
雲煙宛若畫	雲煙은 완연히 그림과 같고
草樹巧如粧	풀과 나무 기교하기 단장한 것 같아라.
浮家泛宅任平生	여기저기 떠돌이로 평생을 맡기니
胸中自由無何鄕	가슴속에 지닌 것 고향 따로 없구나.
此行不是求爲田	이 길이 田地를 구하자는 것 아니고
祇恐祖生先着鞭	다만 祖生이 먼저 채찍 잡을까 싶어서네.
感愾無言淚如洗	감개하여 말없이 눈물 흩뿌리니
茫茫島外空長天	아득한 저쪽은 높 넓은 하늘인가
匣中霜劒寒三尺	칼집 속엔 석자의 칼 서슬이 퍼렇나니
壯士有心終報國	壯士의 지닌 마음 끝내 나라에 보답하리!

<甲午年夏 避地江南 頗有流離之歎 因賦長短歌 命之曰 杖劒行(甲午年 여름에 江南으로 避身하니 유랑의 탄식이 있어 長短歌를 짓고서 杖劍行이라 하였다)>[24]

이 詩는 1174年(明宗 4) 甲午年의 작품이다. 林椿이 江南으로 避身하면서 쓴 詩이다. 작가의 鬱憤이 奔放한 氣像과 筆力으로 표출된 長詩이다. 이 詩는 作者의

24)『西河集』第1卷. 장금행과 以後의 모든 詩의 飜譯은 秦星圭의『西河集』, 飜譯을 참고하였음.

現實 世界에 대한 挫折과 鬱憤을 直說的으로 表出시키고 있다. 즉 自身의 感情을 昇華시켜 세련되게 表現하지는 못했지만 窮乏했던 生活과 內面世界를 確然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25] 오히려 悲憤慷慨하는 心情을 眞率하게 형상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임춘의 奔放한 氣像과 率直한 내면세계의 표출이라고 하겠다.

詩의 前半部의 내용은 時代的 狀況과 自身의 與件이 맞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權力層에 빌붙고 世上에 阿附하여 出世하려는 者들을 비판하고 있다. 현재 자신은 流落의 길에 들어서고 있지만, 언젠가는 돌아 올 것을 기약하고 있다. 詩 後半部에서는 일단 現實 世界를 떠나 새로운 生活을 摸索하지만, 自身은 결코 未知의 世界에 安住하려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權力層에 阿附하여 出世하려는 者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自身의 能力을 發揮하여 宦路世界로 進出하겠다는 强한 意志를 보여주고 있다.[26] 현재는 비록 새장 속에 갇힌 새의 신세와 같이 처량하지만, 丈夫의 의지는 함부로 꺾일 수 없음을 吐露한 것이다. 따라서 칼집 속 석자의 칼이 서슬 퍼렇게 자리하고 있음을 그려냈다.

시에 표현된 여정을 보면, 당나귀 한 匹로 秋風嶺 길을 通하여 故鄕인 醴泉을 向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 이로써 처음에는 醴泉에서 살았을 듯한데 "飄然히 開京을 버리고 故鄕을 떠났으며, 오랫동안 江南에서 糊口하다가 다행히 境內에 살 곳을 定하게 되었다"[27]라는 것은 尙州境內를 말하는 것이다. 以後의 여러 記錄으로 보아 醴泉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크다.

2년 후에는 尙州와 尙州 境內 開寧, 妙光 고을에서 "… 내가 이 고을에 온 지 3년 만에 그를 우연히 만나 뵙게 되었는데…"[28]라고 하여, 生活한 記錄이 「妙光寺十六聖衆會象記」에 기록되어 있다. 그 以後 「足庵記」의 記錄을 보면, 京畿, 湍州, 柑岳山으로 移轉 前까지 開寧, 妙光 고을에서(1176~1181) 5年間 生活한 것이 確實하다.

---

25) 崔恩珍, 「西河林椿의文學硏究」, 『한문교육연구』 제7집, 한국한문교육학회, 1993, pp.243~244 참조.

26) 林鶴樹, 「西河 林椿 硏究」,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p.48 참조.

27) 『西河集』 第6卷, 「謝尙州鄭書記紹啓」. "飄然去國以離鄕 久餬口於江南 幸卜居於境內".

28) 『西河集』 第5卷, 「妙光寺十六聖衆會象記」. "前略…余至州三年 偶抵謁之…後略".

1) 醴泉地域의 流落의 背景

醴泉 多仁懸은 本來 尙州의 屬縣이었다. 尙州文化院에서 출간한 『商山誌』에 의하면 高麗 仁宗(1122~1146) 때 群吏 林支漢이 叛將 崔宗 等을 討征하는 데 功이 있었다고 한다. 그 賞으로 職分을 주려고 하니 林支漢이 이를 辭讓하고 現 尙州管內의 多仁懸을 醴泉으로 移屬하게 해 달라 要請하여 仁宗의 許諾으로 變更되었다고 『輿地勝覽』과 趙自敬의 『撰記』에 기록이 있다.[29]

尙州地域 周邊에서 流落活動을 했던 곳으로는 처음에 醴泉地域이었고, 尙州地域을 거쳐 尙州境內 開寧, 妙光 地域까지 流落하게 되었다. 먼저 醴泉地域에서는 開心寺址 5層 石塔이 있는데, 이 石塔은 現在 醴泉邑 南本洞 200의 3番地 솔개들논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이 石塔의 陰刻된 塔記와 『新增東國輿地勝覽』의 記錄을 보아 開心寺는 高麗 初 以前에 세워졌을 것으로 推測하고 있다. 이 石塔은 造成時期 (1010)가 분명하고, 高麗 初期 石塔의 代表作이라 할 수 있으며 韓國石塔 100選에 包含될 정도로 造形美가 뛰어난 아름다운 塔이다. 石塔의 塔記에 依하여 醴泉林氏가 地方豪族으로 活動한 것을 알 수 있다.[30]

西河 林椿이 武臣亂을 避害 醴泉 知過里에 隱居하여 그 집을 喜聞堂이라 하였다.[31] 西河가 故鄕 地域 住民들에게 愛鄕心과 愛民心을 發揮하여 마을의 配水施設과 農業用水 灌漑施設物을 完成하였다. 이 시설들은 2000年에 현대적으로 정비되기 전까지 마을 주민들이 使用하였다. 醴泉邑 西本洞에 위치한 굴모리는 醴泉邑 市街地 關門인 同時에 河水 全體를 配水하는 굴이 있는 重要한 地點이다. 河水가 빠지는 導水路 굴은 1170년경 이곳 出身 西河 林椿이 이 굴을 처음 뚫어서 漢川의 물을 끌어다가 서정잿 들에 물을 댈 수 있도록 開設하여 林椿遷(굴모롱이에 있는 굴)이라 했다.[32]

---

29) 金子相 譯, 『商山誌』, 尙州文化院, 2003, p.3.
30) 金奉均, 「開心寺址 五層石塔 記文 硏究」, 『松園先生傘壽紀念論文集松園先生傘壽紀念論文集刊行會』, p.349 참조.
31) 「林西河文集序」, 『西河集』, p.21. 現 慶北 醴泉郡 普門面 玉泉洞에 있는 마을.
32) 『醴泉郡誌』, 醴泉郡, 1987, p.822.

西河 林椿은 굴모리 터널 導水路 工事 完了 後, 이웃 고을인 尙州를 거쳐 尙州 境內 開寧, 妙光으로 移轉한 것으로 보이며, 그때의 狀況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저는 福이 없고 家門이 쇠하였며, 몸은 쇠잔해지고 집은 피폐되어서 다만 밭과 집을 구하고자 표연히 서울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입에 풀칠이나 하고자 江南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境內에 살았으나 음식은 옥 같고 땔나무는 계수나무 같아 蘇秦의 근심을 견딜 수는 없었습니다.[33]

살펴본 바와 같이 西河 林椿의 醴泉에서의 생활은 이처럼 困窮한 삶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애민 정신이 발현된 삶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2) 尙州地域의 流落活動과 背景

尙州는 邑城國家 時代의 沙伐國과 古寧 伽倻國의 歷史와 文化에 뿌리를 둔 古都였다. 沙伐國은 尙州地方을 中心으로 形成된 小國이었고, 古寧 伽倻國은 咸昌邑을 中心으로 形成된 小國이었다. 이 두 文化圈이 新羅에 吸收되면서 尙州圈으로 묶이게 되었고, 尙州文化를 이루어 왔다.[34]

高麗가 918年(태조 1) 建國하여 940年(태조 23)에는 沙伐州를 尙州로 固着시켰고, 964年(광종 15)에는 古冬攬郡을 咸寧郡으로 改稱하였다. 1018年(현종 9)에는 全國 8牧의 하나로 7郡 18縣 二知事府를 관장하게 되어 聞慶郡, 龍宮郡, 開寧郡, 咸昌郡, 永同郡, 海平郡, 化寧, 山陽, 化昌, 靑山, 功城, 丹密, 比屋, 安貞, 中牟, 虎溪, 禦侮, 多仁, 靑里, 加恩, 一善, 軍威, 孝靈, 岳溪縣, 京山, 安東知事府 등으로 여전히 高麗朝에서도 尙州圈은 大邑이었다. 高麗 中期에 이르면 佛敎文學만이 아닌 金守雌가 1129年(仁宗 7) 「幸學記」를 써서 睿宗, 仁宗朝의 學校制度 狀況을 알려주었고, 鄕里에서 私學을 개설하였다. 1170年(毅宗 24)에는 鄭仲夫의 亂이 일어나고, 뒤 이어 1196年(明宗 26) 부터는 崔忠獻에 의한 崔氏 執權期가 열렸으나 林椿, 李奎報, 朴仁碩과 같은 大文章이 尙州를 隱身處로 避身하여 尙州는 제1

---

33) 『西河集』 第6卷, 「謝尙州鄭書記紹啓」. "某祚薄門衰 身殘家破 徒欲求田而問舍 飄然去國以離鄕 久餬口於江南 幸卜居於境內 食如玉薪如桂 不堪蘇子之愁".
34) 權泰乙, 『尙州漢文學』, 文昌社, 2002, p.15.

의 文藝 復興期를 맞게 되었다. 西河 林椿은 國文學史上 最初로 假傳體小說을 남겼다. 또한 『西河集』「小林寺重修記」를 써서, '儒釋二敎本無異說'을 展開하였다. 이 當時 尙州에는 香社라고 하는 중국시인 白居易가 조직한 詩社를 조직하는 풍조가 있었다는 것도 알려 주었다. 1195년(명종 25)에는 상주사록 崔正份이 恭儉池(1171~1197)를 옛 규모대로 重修하여 灌漑用으로서 만이 아니라, 嶺南 最大의 蓮池로 詩作의 名勝地가 되게 하였다. 상주는 고려의 유명한 문인인 白雲 李奎報도 崔忠獻의 亂을 避하여 1196년(明宗 26) 6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尙州에 寓居하며 『東國李相國集』「行過洛東江」 6 詩를 비롯하여 尙州 관련 詩 61首를 남겼다. 記錄上 洛江詩會의 작품으로는 최초의 작품으로 後代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그리고 崔正份의 주선으로 客舍에서 詩宴을 베풂으로 商山館은 이 뒤로도 樓亭文學의 産室이 되어 商山 三樓亭의 하나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花開寺, 東方寺, 資福寺, 龍潭寺 등도 수준 높은 詩僧이 머물러 詩作의 空間이 되었음을 알려 주었다.[35]

다음 시는 尙州에서 지내면서 지었던 작품이다. 객지 생활의 적막함과 외로움이 잘 드러나 있다.

上洛重遊日	상락에서 다시 놀던 날
秋深物象饒	깊은 가을이라 만물도 풍요로워
江山雖自異	강산은 비록 다르지만
風月好相邀	풍경과 달빛은 서로 맞이해 주었다네.
客久家何在	오랫동안 나그네 되었으니 집이 어디에 있으랴!
天寒路更遙	날씨는 차갑고 길은 멀기만 한데.
年華容易去	세월은 쉽게도 흘러가고
萍迹等閑飄	부평초 같은 이 자취는 한가히 떠도는데
落葉驚羈旅	낙엽에 나그네 마음 놀라고
孤砧伴寂寥	외로운 다듬이 소리는 적막을 깨누나.
悲吟懷往事	슬프게 읊으며 지난 일을 회상하니
獨臥負良宵	홀로 누워서 좋은 밤의 신세만 지누나.
裘薄嫌風夕	엷은 겨울옷은 바람 부는 저녁이 싫어지고
窓明怯雪朝	창문이 밝으면 눈 내리는 아침이 두렵네.

35) 權泰乙, 前揭書, p.18.

閑行尋士板　　한가히 토판을 찾아 나서서
長揖謁官寮　　관료를 뵙고 길게 읍하네.
傾蓋逢新俊　　수레의 포장을 기울여 새 준사를 만나니
通家有舊交　　통가하는 구교가 있다네.
就中何所欠　　그 가운데 무엇이 빠졌는가
不見阿紅嬌　　홍장을 한 아교가 보이지 않는 것.

<重遊尙州寄人(다시 상주에 놀면서 어느 사람에게 부침)>[36]

위의 시는 五言古詩이다. 임춘이 한 곳에 定着하지 못하고 떠돌던 외로운 心境을 엿볼 수 있다. 1~4句는 비교적 豊足한 땅이었던 尙州에서 자연의 다감함과 풍요로움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5句에서는 자연의 풍요 속에서도 자신의 외로운 처지는 위로되지 않음을 그렸다. 즉 '家何在'라 하여 定着할 곳 없는 나그네의 외로운 심사를 그대로 표출시켰다. 6~7句에서는 계절적 민감함과 시간의 빠름을 교차시키고 있다. 따라서 詩的 雰圍氣를 한층 高調시키고 있다. 갈 길은 멀기만 한데 차가운 날씨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기에 무심히 지나가는 세월은 나그네의 심정을 더욱 외롭게 하고 있다. 8~10句는 流落地를 떠도는 浮萍草같은 자신의 심사를 그리고 있다.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 때로는 한가한 듯하지만, 낙엽 구르는 작은 소리에도 움츠리듯 당시 시국의 험난함은 임춘에게 한없이 긴장과 억압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특히 10句의 孤砧은 나그네의 피로감과 외로움이 극명하게 표출된 것이다. 이 詩의 中心素材라고 할 수 있다. 즉 聽覺的 心象으로 寂寞한 밤에 울리는 다듬이 소리는 나그네의 심사를 더욱 孤寂하게 만드는 效果를 지닌다. 객지에서 깊은 밤에 들리는 다듬이 소리는 나그네를 잠 못 들게 하면서 현실과 지난날을 回想하고 비교하게 만드는 觸媒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임춘의 空虛한 심경과 孤獨한 현재의 모습을 잘 파악할 수 있다. 13~14句는 과거와 현실사이의 괴리감을 그리고 있다. 過去를 回想하던 나그네는 문득 현재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깨닫는다. 헤어진 털옷과 추운 날씨를 걱정해야 하는 窮乏한 사정을 直接的으로 描寫하고 있다. 他鄕에서 떠도는 나그네의 處한 心情, 즉 歲月에 대한 焦燥感, 客苦, 孤獨 등이 겨울이라는 季節的 雰圍氣와 잘 調和되어 나타난 詩이다.[37]

---

36)『西河集』第3卷.
37) 崔恩珍, 前揭論文, pp.245~246 참조.

임춘의 진솔한 정서가 그대로 노정되었다. 즉 잠시나마 과거의 옛 추억에 빠질 수 있었던 작가는 매서운 현실 앞에 또다시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짐을 그렸다.

流落生活 中 尙州에 있으면서 나그네 林椿이 느끼는 불안한 心境을 잘 표현한 작품이다. 한 겨울밤의 寂寞하고 싸늘한 雰圍氣와 調和를 이루며, 짙은 客愁로 표현되었다.[38] 나그네에게 있어 겨울은 갈 길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매개체이다. 여기에 지난날을 뒤돌아보니 한때의 영화로움이 무상하게 지나갔음을 그렸다.

다음 한시는 西河가 尙州에 머물면서 유락의 아픔을 잊고 龍興寺에서 親舊들과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지은 詩이다. 龍興寺는 新羅 文聖王 元年(839) 眞鑑國師가 創建하였고, 慶北 尙州市 甲長山에 있는 寺刹이다.

麑鹿性難馴	사슴의 성품 길들이기 어려운 것은
城市非所樂	성시를 어려워하지 않기 때문.
魚龍不厭深	어룡이 깊은 물 싫어하지 않듯이
久思江湖躍	오랫동안 강호에 뛰놀기를 생각하였지.
而我心不羈	또 내 마음 구속받지 않아
矯翼望寥廓	아래를 가다듬고 먼 하늘 바라본다.
嗟爲名所牽	아! 명예에 끌려
宿志負丘壑	내 뜻이 구학을 저버렸지만
爲有相携人	서로 붙잡아 끄는 사람 있어서
晩步同出郭	느린 걸음으로 성곽을 빠져나와
崎嶇入幽洞	기구한 길로 깊숙이 들어가니
巖谷如棋錯	산곡의 암석들 바둑판같이 널려 있네.
深溪亂淸流	깊은 여울 맑은 물은 요란스럽고
數里橫野杓	수리엔 야생 표주박 뒹굴고 있어라.
蒼然暮靄間	창연한 저녁노을
孤塔靑山脚	청산 아랜 고탑이 서 있네.
黃昏始投寺	황혼녘에 사찰을 찾아드니
古殿鳴風鐸	옛 전각에 풍탁이 울린다.
明月上峯頭	명월은 산봉우리에 오르고
松陰寒落落	솔 그림자 스산하고 쓸쓸해라.
高人笑相迎	고인이 웃으며 맞이하기에

38) 林茂花, 「林椿詩의 恨 硏究」, 안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41 참조.

笑語破寂寞　　넉살은 적막을 부수고
壺傾大道漿　　병을 기울여 술 따르니
淸夜開小酌　　청야에 주연이 열렸네.
坐久渾不寐　　오래 앉아도 졸지 않고
狂吟雜戱謔　　음영과 희학을 하노라.
問子何年中　　묻노니, 자네는 어느 해에 급제하여
構室煥丹雘　　붉게 단장한 집을 짓겠는가.
自云嗜爲善　　스스로 말하기를 선행을 좋아하며
千金盡傾橐　　전대를 털어 천금을 없앴다고
焚香禮白毫　　분향하며 부처님께 절하고
燕坐淸風閣　　한가히 청풍각에 앉노라.
此外更無事　　이 밖에 아무 일 없으니
豈羨楊州鶴　　어찌 양주학이 부러울까.

<九月五日 與友人遊龍興寺 海雲房碓師求詩 分韻得閣字(9月5日 벗과 함께 龍興寺에 놀 때 海雲房碓師가 詩를 요구하므로 韻字를 나누다 閣字를 얻었음)>[39]

이 詩는 임춘이 모처럼 벗과 함께 즐기며 회포를 나눈 작품이다. 西河의 豪放한 風流를 高僧과 더불어 나누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碓師' 역시 詩僧이요, 高僧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高麗朝 寺刹의 한 機能을 엿볼 수 있다. 그러므로 尙州 甲長山 龍興寺가 古來로 文學의 産室이 된 것은 우연히 아니라고 볼 수 있다. 龍興寺 遊覽을 時間上으로 敍述하듯 한 詩가 淡淡하면서도 詩人의 묵은 情懷는 妙하게도 渾然히 펼쳐졌음을 볼 수 있다.[40] 한때는 立身揚名을 꿈꾸었던 것임을 詩의 前半部에 含蓄시키고 있다. 구속받기를 싫어하였던 성품의 임춘은 자유로운 삶을 구가하고자 하였으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반된 길을 걷게 된 것이다.

詩의 後半部 내용은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면서 오랜만에 벗과의 어울림을 그리고 있다. 시인이 기구한 길로 깊숙이 들어서니, 깊은 여울물은 다투어 흐르고 있고, 거친 표주박 등이 있어 자연스런 詩的 雰圍氣를 자아내고 있다. 또한 벗과의 만남과 問答에서 서로의 삶의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에 시인의 虛誕한 심경이 드러나고 있다. 고승과의 문답을 통해 당시 상황만큼은 양주학이 부럽지 않음을 그

39)『西河集』第2卷.
40) 權泰乙, 前揭書, pp.48~49 참조.

려내고 있다.

平生愛竹老文同　　평생 동안 대나무를 사랑한 문동옹은
獨恨兒孫掃地空　　오직 자손들이 땅이 환하도록 소재함을 슬퍼하였네.
解勸主人須會意　　주인에게 주의하라고 권한 것은
春來移種小樓東　　봄이 오면 소루의 동쪽에 (대나무를) 옮겨 심으라고 했네.

<次韻資福寺留題(資福寺의 留題를 次韻함)>[41]

위의 詩를 보면, 尙州지역의 佛敎가 상당히 旺盛했음을 알 수 있다. 즉 西河가 尙州圈域에서 文學 活動을 할 때에는 이미 많은 교류가 사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174년경에 쓰인 詩로써,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평생에 대나무를 사랑해 문동[42]을 흠모했더니, 子孫들이 다 쓸어 버린 걸 홀로 歎息했었네. 煩惱 풀어주는 主人과 나와 意氣 相通하여, 봄 오자 작은 樓閣 동쪽에다 심어 놓았구려."라고 읊은 것이다. 이보다 20餘年 후인 1196年 陰曆 九月 九日에는 白雲 李奎報가 이곳을 찾아 다음과 같은 시를 남긴 바가 있다.[43]

門前不見白衣來　　문 앞에 흰옷 입은 신도는 보이지 않고
獨向僧家索酒杯　　나 홀로 절을 찾아 술벗 찾았네.
枝揷滿頭香滿口　　온 머리 꽂은 꽃가지 입안 가득한 향기
免敎黃菊恨虛開　　황국화 저 혼자 핀 한을 면한 줄 알겠구려.

<九日訪資福寺主老留飮(음력9월9일 자복사의 노승 주지를 찾아 마심)>[44]

앞에 시에서 西河는 鄭仲夫의 亂으로 인해 避身 中 다소 비판적 詩意를 함유시켰지만, 白雲의 시는 李資謙의 亂을 피해 避身 中이었으면서도 보다 풍류적이면

41)『西河集』第2卷.
42) 文同(1018~1079)은 字가 與可이며, 自號가 笑笑先生인데, 사람들은 石室先生이라 일컫는다. 송나라 문장가이며, 竹畵의 大家로 알려졌다.
43) 權泰乙, 前揭書, pp.49~50 참조.
44) 李奎報,『東國李相國集』卷6.

서도 멋스러움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資福寺를 찾을 수 있었던 근본 동기는 詩酒를 나눌 수 있는 住持僧이 있었다는 事實일 것이다. 12세기의 상주문학은 불교문학이 그 주류를 이루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하겠다.[45] 또한 서하는 자복사에서 절의의 표상 대나무를 소재로 삼았다면, 백운은 국화를 중심 소재로 하여 시의 운치에 있어 차별화를 느낄 수 있다.

3) 開寧地域 流落期의 文學 活動

甘文國 開寧은『三國史記』『新增東國輿地勝覽』의 史料에서 지금의 開寧面 東部里와 陽川里 一帶를 中心으로 開寧面과 甘文面 一帶를 지배했던 三韓時代의 弁韓系 12國 가운데 하나였다. 甘文國은 일찍이 古代國家로서의 기틀을 確立하고 伽倻와 百濟를 牽制하려던 新羅에 의해 231年 討滅되어 歷史 속으로 사라져 갔다. 開寧一帶에는 甘文國 王妃의 陵으로 推定되는 獐夫人陵과 甘文山城, 궁궐터와 연못 등이 1800年의 歲月을 넘어 古代 歷史를 말없이 證言해 주고 있다. 以後 沙伐州 아래의 甘文郡으로 있다가 眞興王 18年(557)에 甘文州, 文武王 元年(661)에 甘文郡, 景德王16年(757)에는 開寧郡으로 改編되었다. 이후 高麗時代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朝鮮朝에 들어 太宗 16年(1416)에 開寧縣으로 格下되었다.[46]

이곳 開寧은 邑治로서 洛東江의 支流 甘川이 흐르며, 星州, 秋風, 報恩, 尙州로 通하는 科擧길이 있고, 詩友인 李仁老가 伽倻山에 入山하여 修道僧이 되어 있을 때 하루거리인 이곳에 살고 있는 西河 林椿의 집에 들려 親分을 나누었다.

多公訪我出山行	뭇 어른 날 찾아 산행 나서니,
路上鏗然鐵杖聲	길에는 철장 끄는 쟁그랑 소리.
百箇紫梨來大谷	오얏 담근 아리주 大谷[47]으로 내려,
一壺淸酒換鳥程	한 잔 청주에 험한 산길 바꾸네.
久無好事尋揚子	오래도록 호사 없어 揚雄같이 살랬더니,
忽喜論文見李生	뜻밖에도 문장 논할 李生을 만났구려.
欲葬醉鄕終不返	내내 취향에 묻혀 지내렸는데,

45) 權泰乙, 前揭書, p.50 참조.
46)『김천의 마을과 전설』, 김천문화원, 2010, p.95.
47) 大谷(陷谷)은 慶北 金泉市 牙浦邑 大新1~2洞의 古地名.

何人中路後淵明	어느 누가 中道에서 陶淵明을 찾는가.
紫薇閑佩一壺行	자미로 한가히 술 한 병 차고 와서
門外時聞剝喙聲	밖에서 간간히 문 두들기는 소리 들리네.
問我歸來從小隱	나에게 돌아갈 은사를 묻지만
留君談笑緩廻程	그대를 붙잡아 담소하며 돌아갈 길을 늦추었네.
腹中早識精神滿	배 속에는 일찍 정신이 가득함을 느끼어
胸次都無鄙吝生	가슴에 전혀 인색하고 비루함이 없네.
已使文章曾幷駕	이미 문장도 모두 뛰어나
中興應不羨三明	중흥삼명이 부럽지 않네.
早抱文章獨鼓行	일찍 文章으로 북치며 나서,
妙年方見振家聲	묘년엔 가문명성 떨친 적도 있었지.
窮道誤墜千尋壑	험한 세상 잘못하여 천길 구렁에 떨어져,
逸足須騰萬里程	헛디딘 발길은 萬里여정 올랐네.
作賦誰先吳國土	賦 지을 때 누가 吳國의 선비를 앞서랴.
(中略)	(중략)

<眉叟訪予於開寧以鵝梨旨酒爲餉作詩(眉叟가 開寧에 있는 나를 訪問하여 鵝梨旨酒를 먹게 했으므로 詩를 지어 謝禮함)>

위의 시에서 西河가 開寧 땅 大谷(陷谷)에 寓居한 動機는 1170年 武臣 亂을 避하기 위해서였다. 이곳과 어떤 緣故가 있었는지는 모르나, 이때부터 開寧에 隱居한 것은 確實하다. 또한 李仁老가 訪問하여 위로했을 때 題目에다 "眉叟訪予於開寧"이라 밝혔고, 詩 가운데 "百箇紫梨來大谷"이라 한 것은 오얏 담근 鵝梨旨酒가 大谷(陷谷)으로 왔다는 말이다. 西河가 尙州 牧屬郡 開寧의 大谷(陷谷)에 武臣 亂以後 隱居했음이 確實하다. 以後 1179年 鄭仲夫가 피살당하자, 구속이 풀려 이듬해에는 李仁老(1180年 文科及第)와 같이 科擧에 應했으나 실패하여 開寧으로 다시 돌아 온 사실이 있다.[48]

이 시에서는 벗에 대한 반가움이 한없이 실려 있다. 客地를 떠도는 身世에 귀한 벗이 찾아오니, 더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을 그려낸 것이다. 더구나 文章을 논할 만한 벗과의 만남은 '留君談笑緩廻程'라 하여 헤어지고 싶지 않은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자신을 위로해주던 벗에 대한 감사함은 갈 길도 늦

48) 權泰乙,「西河林椿과 開寧」,『김천예술』2집, 1992, p.37 참조.

추게 만드는 것이다.

Ⅲ. 尙州地域에서의 交遊

西河 林椿이 武臣亂을 避하여 家族과 함께 尙州 地域을 流落하게 되었다. 流落地인 醴泉, 尙州, 開寧, 妙光에서 地域官僚, 知人, 沙門, 中央 政界人物과의 交遊를 通하여 꿈에도 그리는 宦路의 進出을 摸索하기 위하여 많은 努力을 하였다. 그러나 窮乏한 生活苦 解決과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지 못하였다. 오직 江南 地域을 遊覽하면서 自然으로의 歸意를 憧憬하게 되었다. 流落期 生活이 끝나면서 京畿 湍州 紺岳山으로 移轉 하고, 그곳에 三間草堂 居處를 마련하여 家族과 함께 定着하였다.

1. 地域官僚와의 交遊

林椿은 武臣亂을 당하여 流落하게 되었고, 經濟的으로 어려운 處地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는 이를 타개하고자 知人들에게 詩와 文으로써 도와줄 것을 懇請하기도 하였다. 또한 自身을 돌보아 주고 물건을 보내준 것에 대한 感謝한 마음을 詩로써 表現하고 있다.

東野居貧家具少	孟郊가 가난하게 살아 세간이 적다보니
自笑借車無可載	수레 빌어도 실을 것 없어 열없이 웃었더라.
杜陵身窮更遭亂	두보는 궁한데다 난리까지 만나니
未免負薪常自採	땔감 짊어지고 黃精 캐야할 신세 면치 못 했네.
我今無田食破硯	내 이제 전답 없어 깨진 벼루로 밥을 먹나니
平生唯以筆爲耒	평생 오직 붓으로써 쟁기 삼아 왔다네.
自古吾曹例困厄	예부터 우리 무리들 으레 곤액 당하니
天公此意眞難會	조물주의 이 뜻은 진정 알기 어려워라.
五鼎一簞未足校	다섯 솥 밥과 한 그릇 밥은 족히 비교 할 수 없으나
富死窮生何者快	잘살다 죽는 것과 궁하게 사는 것 어느 것이 좋을고
作書乞飯維摩詰	글 지어 維摩居士에게 밥을 비나니

不厭空門淸淨債　　佛家의 빚 싫지 않음이라.
先生有意能活我　　선생에게 뜻이 있다면 능히 나를 살리리니
千金何必監河貸　　천금을 어찌 반드시 河監에게 빌릴 것인가.

<奉奇天院洪校書>[49]

위의 詩는 自身의 困窮한 處地를 핍진하게 表出하고 있다. 1~6句까지는 自身의 절박한 상황을 形象化하였다. 孟郊와 杜甫의 가난을 들어 비유하고 있다. 불우하고 가난한 시인의 대명사인 孟郊는 집 떠난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노래한 「游子吟」의 작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東野는 극도의 빈한에 세간마저 실을 것이 없더라는 것이다. 여기에 두보의 貧窮과 고난한 삶을 提示하여 임춘이 處한 極限狀況을 짐작할 수 있게 하였다. 여기에 임춘 자신은 깨진 벼루로 연명하고 붓으로써 연장을 삼았음을 그리고 있다. 오로지 학문으로서 삶의 벽에 맞서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절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7~8句에서는 自身의 狀況을 運命的인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나, 지속적인 곤궁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따라서 "自古吾曹例困厄 天公此意眞難會"라 하여 자신에게 밀려드는 곤궁에 대한 힘겨움을 표출하고 있다. 現實이 如意치 못한 것에 대한 不滿을 애써 抑制하고 있어 淡淡하면서도 쓸쓸한 雰圍氣를 연출하고 있다.[50]

9~10句에서는 '五鼎'과 '一簞'의 비유를 통해, 진정한 삶에 대한 가치관을 노정하고 있다. 부자로 죽는 것과 가난하게 사는 것에 대한 생각을 그리고 있다. 13~14句는 知人에게 糊口할 정도의 糧食을 懇切하게 빌고 있다. 글을 지어 밥을 비는 자신의 의지를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다. 즉 "先生有意能活我 千金何必監河貸"라고 하여 具體的으로 자신의 뜻을 피력하고 있다.

流浪하던 中 한때 星州에 들렸을 적에 그 곳의 太守가 林椿의 名聲을 알고, 한 妓生에게 시중들게 한 바가 있다. 그러나 겉모습의 초라함에도 傲氣가 가득한 그에게서 도망치고 말았다고 한다. 그래서 林椿은 詩로써 스스로 慰勞하였는데 그 詩가 바로 <戲密州倅>[51] 이다.

---

49) 『西河集』 第3卷.
50) 柳廣眞, 「林椿의詩硏究」,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p.49 참조.

이렇듯 임춘은 妓生에게도 賤待받았지만, 자신의 詩作 能力은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自負하였다. 다음 <謝人見訪> 詩에는 이러한 자신감이 거리낌 없이 표출되었다.

長安霖雨後	장마 비 뒤의 장안에
思我遠相過	나를 생각해 멀리 찾아왔네 그려.
寂寞蝸牛舍	이 적막한 달팽이집 앞에
徘徊駟馬車	머무른 사마수레.
恒飢窮子美	항상 굶주리는 궁한 두자미
非病老維摩	참 병 아닌 유마거사.
莫署吾門去	문간에 이름을 적지 말고 가소
聲名恐更多	세상에 이 내 명성이 더욱 날까 두렵네.

<謝人見訪>[52]

위의 詩는 곤궁함 속에서도 자신에 대한 자부심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꼿꼿함을 보이고 있다. 流落生活 중에 地域 官僚들이 自身을 訪問한 것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자신은 비록 벼슬길에 오르지 못했으나, 文章에 대한 명성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53] 1~2句에서 오랜 장마 끝에 개경에서 자신을 찾아온 손님에 대한 반가움을 그리고 있다. 비록 거친 客地 생활일망정 中央에서 자신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지역의 人士가 있다는 점만으로도 위안을 받고 있다.

3~6句에서 현재 自己의 처지와 거처가 마치 '적막한 달팽이집'과 같으나, 當路者들이 찾아와 함께 하여 주는 것을 그리고 있다. 또한 自身은 杜甫나 維摩居士와 같이 현재 가난과 고초를 겪고 있음을 그렸다. 7~8句에서 비록 宦路의 길에 있지는 못했으나, 임춘의 그간의 名聲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마다하지는 않았다. 자신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본인 스스로 自矜心을 表出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혹시 사람들이 드나듦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염려했는지 모르겠다. 地域 官僚들과의 교유는 임춘이 流落生活을 견딜 수 있게 하는 方便이요, 自負心이었을

51)『西河集』第2卷.
52)『西河集』第1卷.
53) 金應煥, 前揭論文, pp.8~9 참조.

것이다.

2. 從兄과의 交遊

林椿이 尙州境內 開寧, 妙光에서 지내고 있을 때, 四寸형님인 정옥이 尙州에 왔다. 이에 임춘은 종형을 자신이 사는 곳으로 오라는 시를 지었다. 尙州에서 開寧, 妙光까지는 하루 정도(至此可三飡)의 距離이다.

昨歲過洛州	지난해 낙주를 지나면서
一日停行輈	어느 날 가는 배를 멈추었지요.
爾後又多難	그 후 다시 어려움 많아
不見年再周	서로 못 본지 두해가 되었네요.
兄方客京輦	형님은 서울 손님이 되었고
我亦居夔陬	저는 오랑캐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譬如兩葉蓮	비유하면 두 잎의 부평초 같아
飄然大海浮	정처없이 큰 바다에 떠 있는 듯입니다.
隨波東復西	파도를 따라 동·서로 다니며
聚散不自由	모이고 헤어짐을 자유롭게 못했습니다.
今聞又杖策	강남에서 유람을 하신다 하니
至此可三飡	이곳까지는 하루정도의 거리이오니
莫言道阻脩	길이 멀다고는 말하지 마세요.
欲聞謦咳聲	형님의 기침소리라도 들으려고 한 것은
頗慰羈離愁	자못 나그네의 시름을 달래려는 것입니다.
天涯遇親戚	천애에서도 친척을 만난다는데
況乃瀟湘秋	더구나 소상 땅 가을에 있어서리요.
貽書先自問	서신 글 보내어 먼저 문안하오니
思我肯來不	저를 생각하여 오시지 않겠습니까.

<聞從兄庭玉到尙州 以詩戲之(종형 정옥이 尙州에 왔다는 말을 듣고 詩를 지어 희롱함)>[54]

54)『西河集』第2卷.

위의 詩는 從兄에게 간곡하게 만나기를 청하는 내용이다. 林椿이 四寸 형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을 담은 작품이다. 그가 한동안 머물렀던 尙州에 四寸 형님이 오셨다는 消息을 듣고 와 주기를 청한 것이다. 또한 객지에서 친척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은 생각만으로도 가슴 벅찰 것이다. 이에 임춘은 시를 통해 '莫言道阻脩'라고 하며 물리치지 말 것을 미리 언급하고 있다.

시 전반부는 時代的 要因으로 自身과 그의 親戚이 不幸한 狀況을 描寫하고 있다. 행동의 제약을 받는 임춘 가문의 고충을 알 수 있다. 이러한 自身의 處地를 있는 그대로 敍述的으로 表現하여 西河 林椿의 情緖가 直說的으로 表出된 것이라 하겠다.[55] 한 집안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뿔뿔이 흩어져 만나지 못했던 심정을 그리고 있다. 마치 浮萍草와 같이 머물지 못하고 떠돌아야만 했던 고단한 情緖가 배어 있다. 이는 한 집안을 휩쓴 위기감과 불안감의 表出인 것이다.

후반부 내용은 안정적이지 못한 객지 생활 속에서 집안 형제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그리고 있다. 즉 客地에서 親戚을 만날 수 있다는 希望은 시인을 더욱 적극적이게 하였다. 따라서 만남을 희망하는 懇切한 기원을 담아 작시한 것이다. 從兄인 정옥이 尙州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으로 온다는 소식을 접한 林椿으로서는 한 달음에 달려와 줄 것을 고대하였다. 혹시 몸이 불편하여 오지 못하겠다할까 염려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여기에 "欲聞謦咳聲 頗慰羈離愁"라고 하여 어떻게든 꼭 만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읊조린 것이다. 從兄과의 만남을 통해 임춘은 流落生活의 고달픔을 달래고 위안 받고자 하는 간절함을 표현한 것이다.

3. 沙門과의 交遊

高麗는 國始로부터 佛敎를 國敎로 定하였고 當時의 高麗社會도 來世的인 求福은 佛敎에서, 現實的인 生活倫理는 儒敎에서 찾았다. 西河 林椿이 流落하여 尙州境內의 龍興寺, 小林寺, 資福寺, 妙光寺 等 스님과의 對話는 자연스럽게 當時의 詩

55) 柳廣珍, 前揭論文, pp.42~43 참조.

人, 文人, 知識層과 疏通할 수 있었다. 俗離山 法主寺의 僧侶와 交遊한 詩를 살펴보고자 한다.

問禪時得到曹溪	선문하다가 가끔 조계에 이르니
洞中地寂煙霞古	골짜기 고요하여 연하가 예스럽네.
萬壑千巖獨杖藜	만학천암 홀로 누빈 지팡이
塵外心虛物我齊	속세 떠난 마음 비었으니 물아가 같구나.
況有高人迎倒屐	더욱이 고인이 다정하게 맞아들이니
更驚佳論妙揮犀	훌륭한 논의 묘한 말솜씨에 다시 놀랐네.
直饒名利終歸去	풍요로운 명리는 아예 떠나보내고
依約靑山共卜棲	청산과 약속 맺고 함께 살았으면.

<遊法住寺 贈存古上人(법주사에 놀면서 존고상인에게 주다)>[56]

이 시는 林椿이 僧侶와의 교유 중에 읊조린 작품이다. 세상의 名利에서 벗어나 자연과 더불어 할 것을 念願하는 바를 그렸다. 이는 기존에 임춘이 지녔던 벼슬에의 욕구와 세상과의 疏通을 추구했던 입장과는 자못 다른 情緖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당시 혼란한 정국 속에 떠돌면서 겪었던 고충의 해결책처럼 시인의 심정적 소망을 그린 것이다.

林椿의 詩 中에는 寺刹이나 周邊의 自然 景觀을 읊조리고 있는 것이 많이 보인다. 이것은 그가 個人的으로 스님들과의 交遊가 頻繁하였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그들로부터 生活에 필요한 經濟的 도움을 많이 받으며 自然에의 回歸를 꿈꾸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詩는 現實과 理想間의 乖離에서 오는 葛藤을 벗어나 仙의 世界를 憧憬하고 自然으로의 回歸를 表出하고 있다. 시인은 이곳에서 俗世에 대한 걱정과 근심, 욕심은 어느덧 사라지고 物我合一의 境地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57]

깊은 산중에서 禪僧과의 만남은 임춘에게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신의 학문에 자부하고 得意하였던 임춘은 현실적 고난에 힘겨운 삶을 살아갔다. 그러나 高僧과의 소통을 통한 高談峻論의 묘미와 思想的 확장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이

56)『西河集』第1卷.
57) 崔恩珍, 前揭論文, pp.258~259 참조.

로써 선문의 깊은 깨달음과 문답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이다. 속세의 거친 풍파를 비껴갈 수 있을 것만 같은 佛家의 세계는 임춘에게 또 다른 선망의 대상으로 표출된 것이다. 더구나 得道한 上人과의 高尙한 談論은 林椿의 知的 만족을 채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을 것이다. 이러한 影響을 받은 西河 林椿은 末年에 京畿 湍州 紺岳山으로 돌아와 草堂을 짓고 생활하기에 이른다.

> <전략>…이름이 契玄이라 하는 天台 스님이 고을의 妙光寺에 居하였다. 내가 이 고을에 온 지 3年에 우연히 그를 뵙게 되었는데, 오래된 전각에 많은 부처의 진형을 보니 단정하고 근엄하기가 실상과 같았다.…<후략>.[58]

慶北 金泉市 開寧面 新龍1리 上新 마을 東南쪽 앞들 건너 150m 地點에 큰 절이 있었다.[59] 상신 마을 뒤 200m 지점 웃 골에는 庵子가 있다. 廣德山 아래 妙光고을은 『東輿備考』에 妙光池[60]가 記錄된 것으로 보아 이웃 고을의 開寧과 더불어 新羅時代 以前부터 형성된 고을로서 마을 東南쪽에 妙光寺가 있었고, 마을앞길에는 옛날 甘文國의 公主가 新羅 총각과 사랑에 빠져 每日 마을 앞 고개에서 만났는데 이를 눈치 챈 집안에서 反對해 못 만나게 하자 公主가 宮을 도망쳐 나와 고개에서 총각을 기다리다 굶어 죽었다 하여 愛人 고개라 불리고 있다.[61]

西河 林椿의 江南 첫 流落地는 本鄕인 醴泉 知過里였다. 그곳에서 은거하여(1174年) 얼마간의 期間 동안 지내다가 尙州와 尙州 境內 開寧, 妙光으로 移轉한(1176年)것으로 보인다. 以後 이곳 開寧, 妙光에서 京畿 湍州 紺岳山으로 移轉 때까지(1181年) 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尙州로부터 35km 距離에 妙光이 있다. 妙光으로 부터 開寧까지는 3km 距離이다. 高麗時代의 驛站인 開寧에 楊川驛, 善山 안곡역, 이웃 金山에 文山驛, 秋風驛, 尙州에 洛西驛이 있는 交通의 中心과 秋風領, 俗離山, 聞慶새재로 通하는 선비들의 科擧길이 마을 앞을 通過하고 있다. 마을에서 龜尾 金烏山이 咫尺에 바라보인다. 洛東江의 支流인 甘川과 禦侮川이 흐르고, 開寧地域은 高麗時代 1223年(고종

58) 『西河集』 第5卷, 「妙光寺十六聖衆繪象記」. “有天台上人 契玄其名者 居州之妙光蘭若 余至州三年偶抵謁之 見一古殿有聖衆繪像 端嚴逼眞”.
59) 『金泉市史』 下卷, 金泉市史 編纂委員會, 1999, p.1889.
60) 『東輿備考』, 경북대학교 출판부, 1998, p.84.
61) 『김천의 마을과 전설』, 김천시 문화원, 2010, pp.99~100 참조.

10)부터 甘川으로 倭寇의 침입에 대한 記錄이 있다.[62] 이곳 開寧, 妙光 地方은 新羅, 高麗時代 以前, 洛東江으로부터 支流 甘川의 물길을 移用, 生活必需品을 실은 배 交通이 일찍부터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4. 中央政界 人物과의 交遊

西河 林椿은 宦路의 꿈을 간직하며 生活하였다. 그러나 平生 科擧에 及第하지 못하고 困窮한 生活을 하였으며, 비굴하게 벼슬을 求乞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다음 시는 벼슬살이를 하기 위해 애쓰는 그의 모습이 哀絶하게 그려지고 있다.

(前略)	(전략)
襄陽布衣窮且老	襄陽의 布衣로 빈궁하고 늙었지만
早思附驥爲飛蝨	일찍부터 千里馬에 붙은 모기가 되려 했고.
欲作曲江亭上	春風 부는 曲江亭 위에서
春風燒尾宴	燒尾宴을 마련하여
尊前解唱喜遷鶯	잔 앞에서 喜遷鶯을 불러 보려 했지요.
禮問見擯誠我分	科擧에 落榜한 것은 진실로 내 분수이니
戰藝無奈無先聲	기예 겨루어 일찍 명성 없었음을 어이 하리오.
却抛文券將向江東去	그러기에 文券 버리고 江東을 향해 가다가
徘徊來謁朱門呈	서성거려 와서 朱門을 찾아 쪽지 내 밀었다오.
(後略)	(후략)

<次韻李相國知命見贈長句 二首>[63]

위의 시는 李知命에게 出仕에 대한 後援을 기대하며 쓴 작품이다. 二首의 詩 中 前聯의 一部를 살펴보고자 한다. '襄陽布衣'라 하여 孟浩然이 아직 벼슬하지 못하고 不遇했던 時節을 말한 것이다. '早思附驥爲飛蝨'는 마치 파리가 준마의 꼬리에

62)『牙浦邑誌』, 牙浦邑誌 編纂委員會, 2009, pp.64~80 참조.
63)『西河集』第2卷.

붙으면 千里의 먼 길도 도달할 수 있다는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孟浩然이 40세가 돼서야 張九齡의 부름을 받고 荊州從事가 된 것을 비유한 것이다. 顔淵이 비록 재주가 뛰어나다고 하나, 孔子에 의해 이름을 낼 수 있었던 바와 같은 것이다. 이처럼 他人의 힘을 빌어서 더욱 이름을 얻게 되는 상황을 그렸다.

林椿 또한 當時에 名聲이 높았던 李知命의 後援을 期待한 것이다. 본인 또한 출사하여 멋진 風流에 젖어 보고 싶은 心情이 懇切했지만, 不運하게도 科擧에 落榜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定處 없이 落鄕의 길에 오르려고 하다가 그래도 未練을 버리지 못하고 高官들을 訪問하여 求官 行脚을 벌였다는 것이다.[64] 이처럼 본인의 간절한 의지를 표출하고 後援의 기대를 드러냈다. 즉 '禮問見擯誠我分'라고 하며 과거에 번번이 낙방하였던 바를 토로하였다. 임춘은 일찍이 '燒尾宴'을 통해 官職에 任命 되었을 때 누리는 祝賀宴을 즐기고 싶었던 바를 그렸다. 이러한 속내는 自己도 한시 바삐 宦路로 進出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출한 것이다.

임춘의 尙州地域에서의 交遊는 地域官僚와 交遊, 從兄과의 交遊, 沙門과의 交遊, 中央政界 人物과의 交遊로 나눌 수 있었다. 이는 고향을 떠나 流落生活을 통해 人間的인 關係를 나누며 때로는 유락생활의 고달픔을 위안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실제적인 도움을 구하기도 하였다. 즉 地域官僚와는 낯선 타지에서 자신의 이름을 듣고 찾아오는 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와 자긍심을 표출하였다. 이로써 생활고에 대한 해결을 도모하면서도 자존감을 잃지 않으려 했다.

계속된 객지생활은 나그네의 客愁를 깊게 만든다. 이때 반가운 從兄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위로와 위안을 얻었다. 또한 학문에 일가견을 갖춘 임춘으로서 沙門과의 交遊는 또 다른 안목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名利를 뒤로 하고 自然을 벗 삼고자 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임춘은 끝까지 中央政界 人物과의 交遊를 지속하며 宦路 進出에 대한 의지를 버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64) 李東喆, 前揭論文, p.8 참조.

Ⅳ. 尙州地域 流落期 漢詩의 思惟觀

西河 林椿의 古律詩 漢詩는『西河集』第1卷, 第2卷, 第3卷에 143제 194수가 실려 있다. 詩의 形式에 있어서는 대체로 古詩를 즐겨 썼다. 특히, 長篇의 古詩가 30餘首가 된다. 林椿은 古文으로 自己 心境을 吐露하고자 했기 때문에 作品에 있어 長篇 古詩와 聯作詩가 주로 많다. 이러한 同一 題目 下의 聯作詩에는 林椿의 奔放한 感懷가 잘 드러나 있다. 江南 流落期와 관련되는 古律詩는 大略 25首 정도이다. 대체로 自傳的 性格을 띠고 있어 自身의 不遇했던 삶을 그대로 그의 作品에 描寫하고 있다. 이는 生涯와 一定한 對應關係를 맺고 있어 亂世에 處한 詩人의 意識이 어떻게 表出되었는지를 端的으로 살필 수 있다. 西河 林椿의 作品은 특히 作家 自身의 心境을 率直하게 表現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그가 처한 불우한 環境과 葛藤을 生動感 있고 眞率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는 林椿이 處한 悲慘하고 不遇했던 個人的 狀況을 詩로써 表出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西河 林椿의 詩에서 主素材가 되고 있는 것은 作家 自身의 삶에 대한 內的 感情이다. 不遇한 處地에 대한 歎息, 鬱憤, 葛藤이 主流를 이루어 단조로운 느낌을 준다. 그러나 詩를 通해서 그의 生涯를 살필 수 있고 그에 따른 意識의 變化도 把握할 수 있다.[65] 本 硏究에서는 尙州地方 流落期 한시를 通해 궁핍한 삶의 고뇌, 환로에의 의지, 유가적 세계 지향 등으로 나누어 그의 사유관을 把握하고자 한다.

1. 窮乏한 삶의 苦惱

西河 林椿이 尙州地方 流落期에 지은 <次韻金蘊珪題 觀音院>에는 武臣亂을 當하여 流落地의 邑治, 郡의 望樓에 올라서 自身의 지난 나날을 回想해 보고, 時間의 흐름을 焦燥하게 느끼는 作者의 心境이 나타나 있다. 家族들의 生計 問題와 自身의 宦路 進出마저도 불확실하고, 漠然한 歲月이 未地를 向해 가는 듯 쓸쓸하고 허전한 生活像이 엿보인다.

65) 柳廣眞, 前揭論文, pp.28~29 참조.

往事悠悠墮渺茫	덧없는 지난 일이 아득하기에
側書詩句兩三行	두 세 줄의 시구를 옆에다 쓰노라.
那嫌擧目江山異	어찌 강산이 변했다 겸하랴
賴有高樓似岳陽	높은 다락 의지하니 악양루 같네.
郡樓登眺遠蒼茫	망루에 올라서서 창공을 바라보니
戀國情深淚數行	그리운 개경 생각에 두 줄기 눈물이.
誰識多情白司馬	누가 알랴 이 다정한 백사마가
天涯流落老潯陽	천애에 유배되어 심양 땅에 늙을 줄을.

<次韻金蘊珪題 觀音院(김온규가 제한 관음원을 차운함)>[66]

위의 詩는 오랜 객지 생활에 지친 나그네의 향수를 그리고 있다. 나그네 身世에 대한 作者의 自嘲와 歎息을 엿볼 수 있다.[67]

1~2句에서는 시를 쓰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다. 나그네에게 있어 덧없는 세월은 참으로 무심하게 느껴질 것이다. 이를 시로써 가름하고자 하는 작가의 심경을 표현했다.

3~4句에서는 시제에 접근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식을 읽을 수 있다. 즉 세월의 변함을 높은 곳에서 조망하여 한 번에 주제에 접근시키고 있다. 높은 樓閣에서 먼 곳을 응시하는 것은 지난 과거의 회상 속으로 침잠하는 시인의 모습이다.

5~6句에서는 시인의 감정이 절정에 이른다. 창공을 주시한 시인의 가슴에 사무치는 開京에서의 생활은 짙은 향수와 그리움을 동반한다. 따라서 自身도 모르게 두 줄기의 눈물로 시인의 감성은 짙은 客愁에 젖어든다. 따라서 하구의 '戀國情深淚數行'은 전체 시의 분위기를 주도한다.

7~8句에서 시인은 白居易의 故事를 引用하고 있다. 백거이는 29세에 進士에 급제하였고 32세에 황제의 親試에 합격하였다. 그 무렵에 쓴 시가 「長恨歌」이다. 백거이는 36세로 한림학사가 되는 등 당대 이미 관직과 문학으로서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유교적 이상주의의 입장에서 정치·사회의 결함을 비판하는 일

66) 『西河集』 第2卷.
67) 柳廣珍, 前揭論文, p.41 참조.

군의 작품을 썼다. 그의 詩歌에 대상이 되었던 고급관료들의 반감을 사서 司馬로 좌천되었던 것이다. 이후에는 洛陽 교외 龍門의 여러 절을 자주 찾았고 그 곳 '香山寺'를 보수 복원하여 '香山居士'라는 호를 쓰며 불교로 기울어졌다. 임춘은 이처럼 自身을 白居易에 견주며 開京으로 돌아갈 날에 대한 期約 없는 流落生活에 대한 서글픔을 싣고 있다.

身在天涯歲又催	천애에 있는 이 몸은 해가 또 재촉하기로
登高自有望鄕臺	높은 곳 오르다 보니 절로 망향대가 되었네.
五年去國長爲客	5년 동안 서울 떠나 오랜 객이 되어
九日無人共把杯	오늘은 구일 이지만 잔을 나눌 사람 없어.
紅葉忽驚霜後落	서리에 진 단풍 갑자기 놀랐지만
黃花猶似亂前開	황화는 난전과 같이 피어 있네.
莫嫌擧止非閑雅	행동거지가 한아하지 않다 혐의 말라
會向龍山許一陪	마침 용산을 가면 한번 뫼시기를 허락하리라.

<九日獨坐 聞諸公有會 作詩寄之(구일에 홀로 앉아 제공의 모임을 듣고 詩를 지어 부침)>[68]

위의 詩는 九月九日 重陽節을 맞이하여 쓴 작품이다. 重陽은 陽數가 겹치는 길일로 重九라고도 한다. 중구절의 국화술은 陶淵明과도 관련 있다. 무료하게 국화밭에 앉아있던 도연명은 흰옷을 정갈하게 입은 손님을 맞게 된다. 도연명의 벗이 보낸 술을 들고 찾아온 것이다. 이렇듯 중양절에 많은 諸公들은 모임을 이루는데 임춘 자신은 流落의 신세로 외롭고 쓸쓸한 情懷를 그렸다.

林椿은 九月 九日 重陽節에 知友들의 모임이 있다는 消息을 들은 것이다. 他鄕에서 맞는 重陽節인지라 그 설움은 더 커져만 가는 듯했다. 더구나 自身에게는 酸권할 벗도 없으니 望鄕의 情은 더욱 깊어간다. 故鄕에 대한 그리움은 望鄕臺가 될 정도로 불타는데, 나그네의 身世로 또 한해를 보냈다. 歲月은 또다시 他鄕에서 5年이나 흘려보냈다고 토로하였다. 여기에 "九日無人共把杯"라고 읊으며 西河 林椿의 외로움과 쓸쓸함의 極限 處地를 나타낸 것이다.[69]

---

68) 『西河集』 第2卷.
69) 林茂花, 前揭論文, p.43 참조.

객지에서 느끼는 세월의 빠름은 나그네의 향수를 더욱 깊게 만든다. 곱게 물었던 낙엽이 서리에 그 빛을 잃고 떨어져버리니 아쉽고 놀랍지만, 흐드러진 국화는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 할 수 있게 하였다. 임춘은 다음 기회를 기약하고 있다. 자신도 중양절에 제공들과 어울릴 수 있는 바람을 그려낸 것이다. 다음 작품은 諦念과 達觀의 一生을 表現한 自畵像이라고 할 수 있는 詩이다.

十年流落半生涯　　10년 동안 떠돌면서 생애를 저버린 몸
觸處邦堪感物華　　가는 곳마다 차마 어찌 경치를 대하리.
秋月春風詩准備　　봄바람 가을 달에 시는 준비되었고
旅愁覇思酎消磨　　나그네 시름, 유랑의 회포는 술로 활활.
縱無功業傳千古　　천추에 전할 만한 공업은 없을망정
祗有文章自一家　　문장은 일가를 이루었구나.
盛世偸閑殊不惡　　성세에 한가함도 과히 언짢지 않은 일
從敎身世轉嵯跎　　내 신세 불우해도 그대로 맡겨두리.

<寄友人>[70]

위 시는 유락생활의 고충을 그린 것이다. 오랜 세월을 떠돌면서 일생의 많은 부분을 타지에서 살아야 했던 노고를 표현했다. 不遇하게 歲月을 보낸 詩人의 處地를 生覺할 수 있는 詩이다. 宦路의 執念을 버릴 수도, 이룰 수도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諦念에 가까운 삶의 한 斷面을 나타내 주고 있다.[71]

西河 林椿은 이미 문장으로서 일가를 이룬 인물이다. 그러나 번번이 科擧에 실패하였다. 또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정착할 수 없는 삶을 살아야만 했다. 따라서 그는 시름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秋月春風詩准備 旅愁覇思酎消磨”라고 하여 오직 시로써 시름을 달래고 술 한 잔으로 회포를 풀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西河의 삶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생각해 보면 자신이 세상에 남긴 공훈은 없으나, 문장으로써 일가를 이룸에 자부하고 있다.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불우한 처지가 한없이 힘들지만 덕분에 주변은 한가롭다하였다. 流落生活 중이라 적어도 政爭에 휘말리지는 않아서 肉身의 한가함은 누

70)『西河集』第1卷.
71) 金應煥, 前揭論文, p.10 참조.

릴 수 있다는 것이다. 불우한 자신의 처지를 일면 받아들이는 듯싶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궁핍함을 장탄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 宦路에의 意志

西河 林椿이 江南에 流落해 있을 때, 知友들의 科擧 及第 消息을 傳해 듣자, 祝賀의 詩를 보낸다. 文名이 널리 알려진 그가 세 차례의 科擧에 실패하고, 自薦으로 宦路의 길을 모색하였지만 이루지 못한 이유는 지나친 自尊心과 과거의 부패, 자신의 학문태도, 武臣들에 의한 人事權의 掌握 등의 要件이 있었다고 본다. 그 중에서도 임춘의 학문하는 態度가 가장 큰 原因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當時 科擧에서 要求하는 글은 聲律과 對偶를 重視하였다. 따라서 內容보다는 형식 위주의 글을 최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임춘은 古文 運動家 韓愈를 私塾하고 經書類만 공부하여 性格 또한 曠達하여 大道 묻기를 좋아 했으니 과거에 급제하기가 어려웠을 것은 自明하다고 하겠다.[72] 그런데도 林椿 스스로는 科擧及第의 希望을 버리지 않고 훗날을 期約하고 宦路進出을 꿈꾸었다.

昔子潮陽去　　옛날 자네가 조양을 떠날 때
歸途雪擁關　　가던 길에 백설은 관문에 쌓였었네.
已應知死所　　이미 죽을 곳을 알았으니
豈料得生還　　어찌 살아오기를 생각했으랴.
未縱靑冥靶　　하늘의 운명 고삐는 놓치지 않았지만
俄緇白玉顔　　잠시나마 백옥 같은 얼굴이 검게 되었네.
相逢一樽酒　　한 술동이로 다시 만났으니
談笑更容攀　　다시 담소하며 어루만져 보세.

紫氣浮函谷　　붉은 기운 이 函谷關 위에 떠서
吾知正度關　　나는 곧바로 관문을 통과한 줄 알았지.

72) 尹用植,「西河 林椿 文學 硏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p.23 참조.

世嗟才久屈	사람들 오랫동안 굴욕된 재사를 슬퍼하였는데
道直詔徵還	도의가 곧으니 詔書로 불러들여 돌아 왔었네.
詩妙誰如杜	교묘한 詩는 누가 杜甫와 같은가
書奇又止顔	기이한 글씨는 또 顔眞卿 뿐이네.
他年同報國	이 다음에 함께 나라 일을 하게 되면
事業笑何攀	何攀의 사업을 비웃어 보세.

<次前韻奉答 二首>[73]

위의 詩는 李湛之의 及第 消息에 쓴 작품이다. 科擧에 及第한 李湛之에게 준 詩에 또 次韻하여 奉答한 詩이다. 李湛之와는 開京을 함께 떠나 流落되었었다. 그러나 李湛之는 林椿보다 먼저 돌아와 科擧에 及第한 것이다. 林椿은 벼슬에 대한 念願을 恒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自身의 能力을 펴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잡고자 하였다. 그래서 언제인가 湛之와 함께 나라의 일을 해보자는 그의 希望과 意志를 말하고 있다.[74] 익히 知友의 苦難을 알았기에 많은 念慮를 하였으나, 당당하게 자신의 能力을 발휘한 바를 축하하고 있다. 또한 벗의 능력을 인정하고 극복할 것을 믿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본인의 念願이기도 하므로 當時의 어려운 形便과 試鍊에 대한 克復을 스스로에게 재삼 강조한 것이다. 다음은 知友 皇甫抗이 科擧에 及第를 하자 이를 祝賀해 주는 詩다.

(前略)	(전략)
昔唐貞元間	옛날 당나라 정원 연간에
狂瀾起縱橫	광란이 종횡으로 일어났지만.
退之獨好文	오로지 한유만은 고문을 좋아해
大唱於後生	크게 후생을 창도 하였네.
時有湜與翺	이때에 황보제와 이고가 있어
相共和其聲	서로들 그 소리에 화답을 하여.
遂使群學者	드디어 배우는 자로 하여금
從之而變更	이들을 따르고 바꾸게 했네.
當今大儒首	지금의 대유된 자는

73)『西河集』第3卷.
74) 金應煥, 前揭論文, p.25 참조.

皇甫氏弟兄　　황보씨 자네 형제뿐이네.
其餘盡流落　　기타의 문인들은 유락을 하니
誰復爲主盟　　맹주는 그 누가 다시 되려나.
(後略)　　(후략)

<賀皇甫抗及第>[75]

위의 詩에서는 林椿의 文學觀을 알 수 있다. 古文 위주의 文風을 귀하게 여긴 것이다. 이는 林椿이 唐의 古文 運動家 韓愈와 柳宗元을 私塾하며 『詩經』에 바탕을 둔 樸實한 詩를 즐겨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當時 科擧指紋으로는 文人들에게 蘇軾의 文學이 크게 流行 하니 林椿은 이를 지적한 것이다. 知友 皇甫抗이 科擧에 及第를 하자, 祝賀詩를 써 보내며 西漢之風의 뜻을 傳했다. 또 "可以興西漢之風章者 捨足下誰耶 勉之勉之"라는 편지로 그의 뜻을 直接으로 밝히니 文에 대한 抱負는 實로 대단하였다.[76]

若水 皇甫抗 역시 竹林高會 7인 중 한 사람으로 특히 임춘과 친교가 깊었던 인물이다. 그 또한 貴族家門의 출신이었으나 능력에 비해 그리 높은 벼슬을 얻지는 못했다. 이 詩에서 임춘은 皇甫抗 能力 發揮의 始發點이 되는 科擧 及第에 대한 祝賀와 이후 그의 쓰임을 期待한 것이다. 따라서 韓愈는 狂亂이 일어났어도 古文의 理論을 이룩하였으니, 皇甫抗도 高麗의 亂世에 西漢之風을 일으켜 盟主가 될 것을 期待한 것이다.

凜凜奇鋒百勝威　　늠름한 필봉으로 백승의 위력을 내어
已看三擅選賢闈　　이미 세 차례의 시험으로 현문에 뽑혔네.
共遊場屋君先捷　　함께 놀던 과거장엔 그대가 먼저 급제하며
笑指煙霞我獨歸　　내 홀로 연하를 향해 돌아 왔었네.
風急搏鵬從北起　　거센 바람 속에 붕조는 북쪽으로 날고
月明驚鵲向南飛　　달빛에 놀란 까치는 남으로 나르네.
山妻只怪頭如雪　　산처는 눈같이 하얀 머리를 이상히 여기지만

75) 『西河集』 第2卷.
76) 崔基燮, 「西河林椿의文學攷」,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pp.24~25 참조.

猶着當年一布衣　　난 아직도 일개의 포의 신세.

<作詩賀李壯元眉叟(詩를 지어 李壯元 眉叟를 祝賀함)>[77]

위 詩는 李仁老의 壯元及第를 祝賀하는 작품이다. 亂國 속에서 뜻을 함께 하였던 벗들의 出仕는 분명 반갑고 기쁜 소식이다. 이인로의 及第 消息 또한 마음으로 축하하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함께 과장에 나아갔으나 본인은 실패를 맛본 것이다. 이에 대한 허탈함은 지울 수 없었을 것이다.

1~2句에서는 李仁老의 及第에 祝賀를 보내지만 3~4句에서는 親舊와는 달리 거듭되는 落榜으로 인해 宦路進出의 길이 막혀 虛脫하게 開寧, 妙光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自身의 悲慘함을 率直히 그려내고 있다. 5句에서 李仁老를 '鵬鳥' 자신은 '鷩鵲'으로 比喩하였다. 이어서 親舊의 영광 속에서 느끼는 自身의 混亂함과 自身의 榮達만을 기다리며 늙어가는 아내의 모습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그리고 있다.[78] 거친 세상 속에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한 眉叟를 '鵬鳥'로 칭하고 존중한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실패는 본인도 예기치 못한 모양이다. 따라서 "月明鷩鵲向南飛"라고 하여 자신의 한없이 초라한 처지를 표현하고 있다. 임춘은 "山妻只怪頭如雪"이라 하여 자신에 대한 家族의 念願을 표현했다. 이는 본인의 계속된 실패에 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그린 것이다. 여기에 "猶着當年一布衣"라고 하여 自嘲的인 허탈함을 그렸다.

七年浪迹寄南州　　7년의 유랑생활 남주에 붙여 있어
輦下重來夢寐遊　　서울에 다시 오길 꿈속에 그렸네.
早抱虛名驚衆耳　　일찍이 지닌 헛된 이름 뭇 귀를 놀랬건만
那知有命壓人頭　　어찌 알랴 운명이 사람머리 누를 줄을.
蛾眉錯畫終辭國　　고운 눈썹 잘못 그려 나라를 하직하듯
猿臂無功竟不侯　　싸움에 공이 없어 봉후를 못 받았듯.
世受君恩是文翰　　대대로 받은 임금 은혜 바로 이 문한이라
驫才何日可能酬　　부족한 재주 어느 날에 보답할 수 있을까.

<有感(느낌이 있어서)>[79]

77)『西河集』第3卷.
78) 崔恩珍, 前揭論文, p.249 참조.

위의 詩를 通하여 林椿의 宦路에 대한 意志를 알 수 있다. 1~2句에서는 江南에서 떠도는 生活이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을 꿈속에서도 다짐함을 그렸다. 즉 서울로의 복귀를 열망하고 있다.

3~4句에서는 일찍이 얻은 文名에 대한 자부와 오기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본인도 예기치 못한 불운에 傷心함이 드러났다. 이는 마치 王昭君이 畵家에게 잘 보이지 못하여 자신의 그림이 잘못 그려진 탓에 오랑캐의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을 그렸다. 이는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으며, 미처 생각지도 못한 통탄할 운명이었던 것이다. 이를 5~6句 上句에서 '蛾眉錯畫終辭國'이라고 표현했다. 마치 본인의 운명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흘러 겪어야 했던 고초를 비유한 것이다. 下句에서는 '猿臂無功竟不侯'라고 하여 李廣의 고사를 읽을 수 있다. 오랑캐를 친 功으로 諸侯 된 자가 數十人인데, 이광은 공을 인정받지 못했음을 그린 것이다. 林椿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초를 자신의 운명 탓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벼슬에의 욕구를 놓지 않고 있다.

마지막 7~8句에서 이러한 宦路 進出에 강한 慾求를 보여 주고 있다. 언젠가는 부름을 받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고대하는 것이다. 이는 곧 先代와는 너무나 對照的인 自身의 處地를 自嘲, 歎息을 吐露하면서도, 그 裏面에는 앞으로 自身의 재주로 나라와 임금의 恩惠에 報答할 날이 틀림없이 올 것이라는 强한 念願을 볼 수 있다.[80] 西河 林椿은 이 詩를 通해서 잘못된 운명으로 비록 현재는 소외되고 고초를 겪지만, 향후 宦路進出의 念願과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3. 儒家的 世界 志向

林椿의 文學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 할 수 있는 것은 儒敎 思想이다. 高麗朝는 光宗(949~975) 以來로 科擧制度를 通해 人材를 登用하였다. 成宗(981~997)

79)『西河集』第1卷.
80) 崔恩珍, 前揭論文, p.248 참조.

때에는 儒敎中心의 政治 理念에 따라 과거제가 크게 隆盛하였다. 成宗은 科擧에 及第하여 官員이 된 者에게 每月 詩 3篇과 賦 1篇을 지어 바치게 하는 月課題를 賦課하였다. 따라서 高麗朝의 儒學은 經典 硏究보다 文藝崇尙의 氣風이 助長되었다. 科擧에 及第하여 立身揚名하고자 하는 現實的인 慾望으로 詩 역시 文學的 才能에 依支하여 技巧的인 面에 치중하게 되었다.[81]

> 우리 집은 伯叔 以來에 當代의 文章이라는 칭찬이 있어 왔다. 翰林院에 넘나들고 承明殿에 出入하면서 子孫에 끼치는 것은 一經으로 하여 서로 소박한 것을 전하고, (중략) 만약 먼 지방에서 늙고 家業을 繼承하지 못하면 장차 무슨 낯으로 先人을 뵈올 수 있겠습니까.[82]

林椿은 先代와 家門을 위해서라도 科擧에 及第하여 벼슬길에 나아가야 했다. 임춘에게는 대대로 이어 온 門閥을 維持하기 爲해서라도 科擧를 通한 立身이 간절하였던 것이다.[83] 따라서 林椿은 여러 知人에게 글을 올려 薦擧하기를 원했다. 그는 詩를 통해서도 이러한 懇切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鳳逸龍蟠臥草廬	봉 숨고 용 서리듯 초려에 누우니
林深不到擧賢書	숲도 깊어 어진 이 천거하는 글 오지 않네.
安身自與山閑靜	몸 편안하여 산과 더불어 한적하고
抱道常隨世卷舒	품은 도는 세상 따라 숨었다 나타났다.
恥向嵩高爭捷徑	치욕은 숭산 향해 첩경을 다투련만
甘從穎水卜幽居	기분은 영수 따라 유거를 점쳤네.
相逢莫問歸何處	만나거든 묻지 마오 어디로 가느냐고
穿白雲行任所如	백운 뚫고서 멋대로 갈테니.

<贈隱者(은자에게 기증함)>[84]

---

81) 李桂松, 「林椿의 意識 特性 硏究」,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p.19~21 참조.

82) 『西河集』, 「上吳郎中啓」. "自吾家伯叔以來 有當代文章之譽 翺翔翰掖 出入承明 謂遺子不如一經相傳素業 若積善必有餘慶宜及後昆 苟終沒於遐荒 而莫承於遺緖 知將何面 下見先人."

83) 李桂松, 「林椿의 意識 特性 硏究」,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p.19~21 참조.

위의 詩에서 임춘은 自己를 薦擧하는 글을 바라고 있다. 현재 자신은 봉이 숨고 용이 서리듯 깊은 '草廬'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 자신의 存在를 천하에 드러내주어 世上에 뜻을 펼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몸은 비록 산중에 있어 한가하지만, 품은 道가 높기 때문에 세상의 쓰임을 懇切히 원하고 있다. 본인의 능력으로 입신의 기회를 얻기가 어렵게 되자, 주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林椿의 이러한 切迫하고 懇切한 뜻은 잘 받아들여지지를 않았다. 武臣政權 아래서는 그의 同僚와 側近들도 임춘을 돕기에 역부족이었던 듯싶다. 그러므로 언제나 자신의 출사를 권할 사람을 찾게 되고 그에 대한 염원을 키우고 있다. 武臣執權期의 人才 쓰임에 대한 편협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당시 많은 인재들이 제대로 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역사 속에 스러지며, 본인의 限界에 절망하였던 바를 알 수 있다. 다음은 西河 林椿이 武臣亂 以後에 儒家的 傳統 家門의 名譽 回復에 對한 內面意識이 깔려 있는 詩이다.

自從避地便忘歸　　피난지로부터 귀향길 잊었지만
夜夢時時入試闈　　밤마다 과장 꿈을 꾸었지요.
要使家聲今復振　　지금부터 집안 명성 떨치기 위해
靑雲相伴鵷鴒飛　　청운가에 척령은 짝지어 날 겁니다.

<寄從兄(종형에게 부침)>[85]

위의 詩는 儒敎的 傳統 아래 온 집안의 命運을 담당하는 가장의 苦惱를 엿볼 수 있다. 떠돌이 생활에 避難地로부터 언제 돌아갈지 모르게 된 歸鄕 길이지만, 立身에 대한 念願은 한시도 그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였다. 科擧文에 대한 輕視가 있었던 그였으나, 科擧는 制度로서 극복해야 할 과제였던 것이다. 또한 한 집안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중대한 사안이었으므로, 언제나 勞心焦思의 面貌를 볼 수 있다.

1~2句에서 自身의 處地를 타개할 돌파구를 찾고자 한다. 이는 꿈속에서도 이어

84)『西河集』第1卷.
85)『西河集』第3卷.

져 科場을 꿈꾸며 그 空間에서 自身의 氣槪를 펼치고 있다.[86] 3~4句는 집안의 한 가장으로서 儒家的 立身揚名의 꿈을 절대시하고 있다. 武臣亂으로 沒落한 家門의 名譽를 회복하여 옛 名聲을 되찾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尙州地域 流落期 漢詩의 思惟觀을 살펴보았다. 이는 西河 林椿의 핍진한 流落地 生活 속에 窮乏한 삶의 苦惱, 宦路에의 意志, 儒家的 世界 志向의 형태로 드러났다. 내일을 期待하기 힘든 流落地의 生活은 겉으로는 한가한 듯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가난에 대한 탄식과 서글픔을 싣고 있었다. 또한 임춘은 끊임없이 宦路에의 進出을 꿈꾸며, 그 意志를 다지곤 하였다. 주변 知人들의 及第 消息은 林椿에게 새로운 자극제이자 念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西河는 武臣難으로 沒落한 家門을 일으켜야 한다는 儒家的 立身揚名의 의지를 표출하였다. 이는 비록 그가 科擧之文의 華麗한 수식에 거부감을 가졌으나, 制度로서 극복해야 할 본인의 과제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였던 바를 표출한 것이다.

86) 金應煥, 前揭論文, pp.24~25 참조.

Ⅴ. 尙州地域 流落期 漢詩의 特徵

西河 林椿의 生活像은 開京에서나 流落地인 醴泉, 尙州, 開寧, 妙光에서나 별로 나아짐이 없는 困窮함의 연속이었다. 武臣 亂 以後 家門이 沒落하자, 家族들의 生計維持는 現實로 다가왔다. 그가 官職을 절실하게 求하려고 한 것도 困窮함을 免하고, 自己의 抱負를 펴기 爲함이었다. 그러나 林椿은 끝내 生活苦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또한 現實 社會는 그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詩와 文章의 素材는 事物이나 自然을 읊은 것보다, 個人的 삶과 日常生活 周邊에서 實際 겪은 일들의 葛藤, 悔恨, 不滿의 心境을 吐露한 詩가 主類를 이루고 있다.

1. 喪失感의 克復과 自矜心의 表出

西河 林椿은 문벌 귀족이었던 家門에의 矜持와 자신의 시작 능력에 대한 강한 自負心을 가지고 살다간 인물이다. 다음 작품은 이러한 임춘의 내면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吾家二公俱英賢　　우리 집 두공은 모두 英賢이라
不慙康樂與惠連　　강락과 혜련에 부끄럽지 않네.
白衣繼入翰林院　　백의로 이어서 한림원에 들고
弟兄高步八花塼　　형제의 높은 자취 대궐에 들었네.
(中略)　　(중략)

每窮穀皮禿兎毫　　매번 곡식과 닳아빠진 몽당붓이 궁했으나
不減風月賦三千　　시 읊는데 三千首 줄지 않았네.
中遭喪亂先廬毁　　중간에 喪亂을 만나 선조의 집이 훼손되고
藏書盡作劫灰然　　장서가 모두 다 잿더미 되었구나.

<法住寺堂頭惠紙筆因謝之(법주사 당두가 지필을 보내주었으므로 사례 함)>[87]

위의 詩에서는 自身의 家門에 대한 自矜心을 표출하였다. 선조들의 훌륭한 학문과 문장에 自負하고 있다. 마치 康樂侯 謝靈運에 비할 정도의 自矜心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는 作者의 마음은 현재 狀況을 이겨낼 수 있는 根源이자, 必要條件이 된다. 현재 본인이 겪고 있는 逆境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原動力이 되기도 한다. 이는 임춘 또한 學問과 文章에 일가를 이루며 매진할 수 있었던 힘이기도 했다. 따라서 "每窮穀皮禿兎毫 不滅風月賦三千"이라고 하여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詩業에 매진하였음을 토로한 것이다. 이로써 家門에 대한 使命感이 强하게 그의 意識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自身이 處한 周邊狀況과 그에 따른 自己意識을 表出함에 있어서 修飾이나 彫琢보다는 있는 그대로 꾸밈없이 率直하게 읊고 있다.[88] 따라서 詩를 통해 임춘 家門의 역경이 사실적으로 전해진다. 이는 평소 西河 詩의 특징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라 하겠다. 窮乏과 苦難에 대한 사실적 描寫와 진솔한 고백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

2. 純粹藝術의 志向

시인은 때로 자신의 삶을 形象化시켜 시로써 드러내고, 그 抒情의 울림을 표현한다. 林椿은 주로 困窮한 삶 속에서 자신의 어려운 점을 그려내곤 하였다. 임춘 시 중에서 특히, 農家의 抒情的인 모습을 그려낸 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田家三月麥初稠	농촌의 삼월은 보리가 무성이 자랄 때
綠樹初聞黃栗留	처음 듣는 것은 밤나무에 앉은 꾀꼬리 노래.
似識洛陽花下客	낙양에서 꽃구경하던 손님을 알아보듯이
殷勤百囀未能休	은근히 울어대어 끊일 줄 모르네.

<暮春聞鶯(이른 봄에 꾀꼬리 소리를 듣고)>[89]

87)『西河集』第3卷.
88) 柳光眞, 前揭論文, p.33 참조.
89)『西河集』第3卷.

위의 詩는 봄날의 抒情을 그리고 있다. 궁핍한 생활고로 作詩에 있어 주로 현실적인 괴로움과 외로움을 비교적 직접적으로 토로하던 임춘이었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봄날 농가의 서정을 捕捉하여 시인의 感情을 이입하고 있다. 그의 벗 李仁老는『破閑集』에 이 작품에 대하여 말하길, "나의 친구 耆之가 失意해서 江南으로 돌아다닐 때 꾀꼬리 소리를 듣고 詩를 지었는데, 表現이 悽惋하다"[90]라는 評을 남겼다. 이는 곧 자연의 물상을 통해 시인의 정감을 표현하여 物我一體의 경지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꾀꼬리의 등장은 시에 있어 생동감을 한층 배가 시켰다.

여기에는 林椿의 고뇌와 그 고충을 멋스럽게 그려낸 藝術的 境地를 알 수 있게 한다. 즉 꾀꼬리가 登場하여 봄날의 시작을 알리지만 林椿의 지난날을 아는 듯 慇懃히 울어대고 있다. 꾀꼬리의 울음소리는 나그네의 失意에 빠진 立場을 代辯하는 것으로 表象되고 있다. 따라서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다고 한 것은 곧 現實에 대한 作者의 喪失感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91] 이러한 시인의 感情은 藝術的 表現으로 昇華되어 한층 멋스럽게 구현되었다. 즉 농가의 한가로운 정경과 그 속에서의 물상의 작은 움직임, 그리고 조용한 꾀꼬리의 울음소리가 함께 하였다. 또한 봄날의 무성한 보리를 통해 푸르른 청보리의 색감을 감지할 수 있다. 이처럼 색감의 조화도 이루고 있어서 시각적 효과와 청각적 요소를 두루 갖춘 공감각적인 정서가 표출되었다.

農村의 푸른 보리밭가에서 꾀꼬리는 平常的으로는 浪漫과 抒情의 媒介體가 될 수 있다. 그러나 尙州, 開寧, 妙光의 農村에서 곤궁함을 겪는 不遇와 困苦를 되씹으면서 生活해야 했던 西河 林椿에게는 애틋한 情恨의 情緖로 表象되었을 것이다.[92] 이러한 西河 林椿의 애달픈 情緖가 꾀꼬리의 울음소리에 感情移入되어 더욱 애잔하게 드러났다. 특히 마지막 句에 '殷勤百囀未能休'라고 하여 시는 끝났지만, 소리의 울림은 계속되는 시적 장치를 布置하였다. 이는 마치 唐詩의 詩中有畵, 畵中有詩의 멋과 맥을 같이 하는 듯하다.

---

90) 李仁老,『破閑集』 卷下. "吾友耆之失意 遊江南 聞鶯亦作詩云(中略)吐詞悽惋若 出一人之口".
91) 林茂花, 前揭論文, p.44 참조.
92) 李東喆, 前揭論文, p.159 참조.

3. 不遇와 感謝

西河 林椿의 生活像은 困苦함의 連續線上에 있다. 武臣亂 以後 家門이 沒落하자 生計維持는 그에게 가장 急迫한 問題로 다가왔다. 이처럼 生活苦는 林椿 自身이 直面한 現實이었다. 따라서 그는 주로 周邊에서 實際 겪은 일들을 소재로 하여 作品化하였다. 예를 들면, 困窮함에서 오는 悲哀意識을 표현한 시 <謝了惠首座惠糧>을 들 수 있다. 이 시를 보면, 스님에게 糧食을 구하고자 했던 困窮함이 절실하게 표현되었다. 심한 生活苦로 스님에게 糧食을 구하고 이에 感謝를 表한 것이다.[93]

1) 양곡을 얻은 일

生活苦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 받을 일이 많았던 林椿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시로써 답례하곤 하였다. 다음 시는 양곡까지 얻어야 했던 임춘의 절박한 심정과 그에 감사한 마음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玉川先生居洛城	옥천 선생은 낙성에 살면서
赤脚長鬚數間屋	적각장발로 두세 칸의 집뿐이었다네.
意嫌長物擾天眞	장물은 천진성을 어지럽힌다 협오 하지만
文字五千空柱腹	오천의 문자는 노장의 배를 공으로 했다지.
平生嗜酒喜吟詩	평생 동안 술 마시고 시 읊기를 좋아했으니
不患擧家唯食粥	온 집안에 죽 먹는 것은 근심도 안했네.
到骨窮寒幾欲死	뼈에 사무친 가난으로 몇 번이나 죽을 뻔
豐年之食貴於玉	풍년에도 식량 떨어지니 옥보다 더 귀했네.
吾師大勝監河侯	우리 스승님은 감하후보다 훌륭하시니
獨歎莊周貧貸粟	오직 가난한 장주가 곡식을 빌리는 것 슬퍼라.
今朝打門驚周公	오늘아침 문을 두들겨 주공을 놀라게 하니
乞與長腰盈數斛	수각 가득히 쌀을 빌렸네.
急呼爨婦甑洗塵	급히 취부를 불러 시루의 먼지를 씻게 하고
厚埋飯甕炊方熟	밥 짓는 화기 잘 묻어 불을 지피자 익었구려.
緩帶甘飡若塡塹	허리띠 축 늘어져 단밥이 첨양을 메우듯

93) 林茂花, 前揭論文, p.38 참조.

七椀香茶飮更足　　향기로운 차 일곱 잔은 마시기에 만족하네.
習習淸風兩腋生　　솔솔 부는 청풍은 두 겨드랑이에 일어나니
乘此朝眞謝塵俗　　오늘아침 정말로 진속에 사례해야 하리.

<謝了惠首座惠糧(요혜 수좌가 보내준 양곡에 대해 사례함)>[94]

위의 詩는 林椿의 生活苦가 克明하게 表現된 作品이다. 糧食을 준 了惠 스님에게 感謝를 표현하였다. 了惠 스님에 대해서는 分明히 알 수 없지만 林椿에게 糧食을 줄 정도의 親分이 있는 高僧이었음을 斟酌할 수 있다.[95] 임춘은 평생 동안 술 마시고 시 읊기를 좋아하며 현실적인 삶과는 무관한 듯하였다. 그러나 "到骨窮寒幾欲死"라고 하며 골수에 미치는 가난 앞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경험을 토로하고 있다. 이로써 "豐年之食貴於玉糧食"이라고 하여 양식이 玉보다 귀한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儒者의 삶에 있어 직접적인 언급이 쉽지 않은 일인데, 임춘은 사실적인 묘사로 솔직한 그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 여기에 "急呼爨婦甑洗塵"이라 하여 임춘은 生活苦와 窮乏을 확연히 표출하고 있다. 굶주림의 고통을 면하게 해준 스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習習淸風兩腋生"이라 하여 심신의 안정을 回復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2) 술을 선물 받은 일

임춘은 어려운 삶 속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지인이 한없이 반갑고, 고마웠을 것이다. 하물며 술까지 선물로 가져왔을 때, 그 감사한 마음은 한량없었을 것이다. 다음 시는 이에 대한 감회와 정취가 드러난 작품이다.

門外頻廻長者車　　문밖에는 자주 장자의 수레가 찾아와
從容談笑酌流霞　　조용히 담소하며 유하주를 따르네.
識奇不是楊雄學　　기자를 안 것은 양웅을 배운 것이 아니지만
日日空煩載酒過　　날마다 번거로이 술을 싣고 찾아오네.

<謝人携酒見訪(술 들고 방문한 사람에게 감사하며)>[96]

94)『西河集』第3卷.
95) 林茂花, 前揭論文, p.39 참조.
96)『西河集』第2卷.

위의 詩는 자신에게 술 선물을 사들고 온 이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것이다. 當時의 官職에 있던 사람들이 술을 들고 訪問한 것을 읊고 있다. 作品 全體가 淡淡한 가운데 詩想이 展開되고 있어 作家의 餘裕로운 모습을 살필 수 있다.[97] 이는 "從容談笑酌流霞"라고 하여 모처럼 느긋하고 여유롭게 손님을 맞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을 찾아와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日日空煩載酒過"라고 하며 頻繁하게 술을 싣고 찾아오는 이가 있음을 표하여 자신의 名聲을 慇懃히 드러내기도 하였다.

3) 잉어 선물을 사례함

孔子께서는 19살에 결혼하여 그 다음 해 첫 아들을 얻었다. 이에 魯公이 축하하는 마음으로 잉어를 선물한 바 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공자는 그 아들 이름을 '鯉'라 하였다는 고사가 있다. 임춘 또한 잉어를 선물로 받고 시로써 사례하며 정회를 그려낸 시가 있다.

忽見先生惠鯉魚	갑자기 선생께서 잉어를 사례함
不須彈鋏歎歸歟	칼을 치고 탄식하며 떠나지는 않으리라.
呼兒乞火烹來處	아이 시켜 불을 빌어 삶아 온 곳에
更得中藏尺素書	다시 뱃속에 든 편지를 얻었다오.

<謝惠鯉(잉어선물을 사례함)>[98]

위의 詩는 鯉魚를 선물 받고 感謝한 마음을 읊은 것이다. "不須彈鋏歎歸歟"는 孟嘗君의 食客 憑驩의 故事를 引用한 것이다. 한때 孟嘗君이 어려움에 처하자 그의 많은 食客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나 오로지 憑驩만이 끝까지 남아서 훗날을 도모할 것을 권했다. 이처럼 선물한 이에 대한 감사를 극진히 표하고 있다. 마치 孟嘗君의 憑驩처럼 의리를 지키고 훗날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음을 그렸다. 또한 잉어를 요리하는 과정 중에 한 통의 편지를 받았음을 표현하였다. 이를 "更得中藏

97) 柳廣珍, 前揭論文, p.51 참조.
98)『西河集』第2卷.

尺素書"라고 하여 '鯉素'라는 귀한 서신으로 묘사하였다.

4) 기생과 어울렸던 일

시인의 서정과 감성은 때로는 섬세하게, 때로는 낭만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風流와 멋스러움으로 그려지곤 한다. 林椿 또한 한때 호탕하게 자신의 抱負를 꿈꾸었던 인물이다. 한 郡守에게서 잠시나마 풍류를 즐길 기회를 얻었던 일을 그린 시가 있다.

紅粧待曉帖金鈿　　붉은 단장으로 새벽 기다리며 금비녀 꽂고서
爲被催呼上綺筵　　호출하라는 재촉 받고 잔치 자리에 올랐네.
不怕長官嚴號令　　장관의 엄한 호령 두려워할 줄 모르고
謾嗔行客惡因緣　　부질없이 행객에게 인연만 나쁘다 성화이겠지.
乘樓未作吹簫伴　　누에 올라 퉁소 부는 짝 되어 주지 못하고
奔月還爲竊藥仙　　달로 도망가니 속절없이 약 훔친 신선이 되었어라.
寄語靑雲賢學士　　청운의 어진 학사에게 부탁하오니
仁心愼勿施蒲鞭　　어진마음을 간직하여 부들 채찍으로 때리지 말게나.

<戱密州倅(밀주 군수에게 희롱삼아)>[99]

위의 詩는 林椿이 彷徨하다가 星山郡에서 묵게 되었을 때 지은 작품이다. 그 고을의 郡守는 林椿의 이름을 익히 알고 있던 터라 妓生 하나를 보내어 모시게 하였다. 그러나 그녀가 밤에 도망쳐 버렸기에 서운하여 지었던 詩이다. 妓生에게 조차 賤視받았던 林椿의 처량한 身世가 더욱 뚜렷하게 浮刻되었다.[100] 임춘은 "不怕長官嚴號令 謾嗔行客惡因緣"이라고 하여 妓生의 행동에 못내 서운함을 그렸다. 이를 "乘樓未作吹簫伴"이라 하여 簫史와 弄玉에 관한 故事를 引用하였다. 秦나라의 簫史는 퉁소를 잘 불었다. 이에 秦穆公은 그의 딸 弄玉을 시집보냈다. 簫史가 弄玉에게 퉁소를 가르치니 그 소리는 鳳凰의 소리와 같았다. 결국 어느 날 달 밝은 밤에 鳳樓에서 둘이 함께 음악을 연주하다가 弄玉은 鳳을 타고 簫史는 龍을 타고 昇天하였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자신과 함께 하지 않은 기생에 대한 아쉬움

99)『西河集』第2卷.
100) 金應煥, 前揭論文, pp.33~34 참조.

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奔月還爲竊藥仙”이라 하여 仙藥을 몰래 마시고 신선이 되어 月宮으로 달아난 羿의 아내인 姮娥의 故事를 引用하였다. 이러한 仙的인 故事를 引用하여 妓生의 도망을 弄玉과 姮娥를 比喩한 것이다. 임춘은 비록 함께 하지 못한 妓生과의 인연이지만, 5~6句의 표현으로 멋스럽게 대처했다. 나중에 그녀가 받게 될 질책을 감싸는 듯 “仁心愼勿施蒲鞭”이라고 하여 자신의 심중을 눙치면서 표현하고 있다.

5) 오이 선물을 주는 일

임춘은 곤궁한 삶을 헤쳐 나가기 위한 자구책으로 오이농사를 지은 바가 있다. 실제 임춘이 당시 살던 곳인 ‘妙光’은 앞에 甘川 냇가가 흘러서 채소농사가 잘 되었던 곳이다. 이곳에서 임춘은 생활의 방편이자 가난의 타개책으로 오이농사를 지었던 것이다. 다음 시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서 얻기만 하였던 임춘으로서 유일하게 지인들에게 선물할 수 있었던 기쁨을 표현한 작품이다.

青門寂寞邵平家　　청문과를 심은 소평의 집은 너무도 적막하여
事業年年謾種瓜　　사업이라곤 해마다 오이를 심는 것이라네.
自是野人無所遺　　이 때문에 야인은 선물할 것이 없어서
爲君摘此獻淸衙　　이 오이를 따다 그대 있는 관가에 드리네.

筆法詩篇自一家　　필법과 시편은 일가를 이루어
瓊琚好報衛人瓜　　경거로써 위인이 준 목과에 보답하였네.
須知獨擅風騷句　　그대가 오직 풍소구를 멋대로 주물렀으니
屈宋還應合作衙　　굴송도 응당 위관에 합당하리.

不到城中蘇小家　　성중의 소소집에 가지 못하니
此身堪恨繫如瓜　　오이같이 매인 이 몸 한이 되어라.
紅顔別後今何處　　홍안으로 이별한 후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要覓殷勤古押衙　　은근히 옛 압위에나 찾아보리라.

<摘瓜寄洪書記 三絶(오이를 따서 홍서기에게 보냄 삼절)>[101]

위의 詩는 밭작물로 오이농사를 지었던 바를 그렸다. 開寧, 妙光의 甘川, 禦侮川 갯밭에서 여름철 밭작물로 오이를 심어 家事의 經濟的 도움을 받았던 것이다. 임춘은 늘 극빈한 생활 속에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기만 하였다. 보답할 것이 없었으나, 손수 지어 얻은 농작물로 사례할 수 있는 여유를 그렸다. 林椿 自身이 勞動으로 收穫한 오이를 이웃 고을 尙州 郡守에게 膳物하여 조금이나마 남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즐거움을 읽을 수 있다. 그러면서 임춘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절묘하게 그리고 있다. 이를 "此身堪恨繫如瓜"라고 하여 관찰자적 기법으로 자신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4. 流落과 孤獨

西河 林椿은 武臣亂을 겪은 후 겨우 목숨을 보전하여 7년간 예천, 상주, 개령, 묘광 등지에서 流落하였다. 이때 儒家的인 浩然之氣를 기르고자 洛州城과 嶺南寺 등을 자주 遊覽하였고, 많은 작품을 남겼다. 이 가운데 나그네의 처량한 신세, 고독, 향수 등의 정서를 담고 있는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凌晨獨出洛州城　　꼭두새벽에 낙주성을 나와서
幾里長亭與短亭　　크고 작은 역참 몇 리를 달렸을까.
跨馬行衝微雪白　　달린 말굽 땅에 부딪쳐 흰 눈 치솟고
擧鞭吟數亂峯靑　　채찍 소리 몇 마디에 뭇 봉우리 푸르네.
天邊日落歸心促　　하늘가 해 지고 돌아갈 마음 급한데
野外風寒醉面醒　　들 건너 찬바람에 취한 얼굴 깨누나.
寂寞孤村投宿處　　적막한 고촌에서 투숙하려 했더니
人家門戶早常扃　　인가의 문호는 일찍 빗장 걸었도다.

<冬日途中 三首(겨울철 길 가운데서 3수)>[102]

위의 詩는『西河集』에 전하고 있는 <冬日途中> 세 수 중 첫 번째 시이다. 林椿

101)『西河集』第3卷.
102)『西河集』第1卷.

의 <冬日途中>은 홀로 길을 가는 나그네의 孤獨感과 처량한 身世가 초겨울의 季節的 雰圍氣와 잘 調和를 이뤄 유락과 고독의 정서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작품의 내용을 보면 林椿의 '어느 겨울날 하루'가 고스란히 들어 있다. 작품 속의 시간은 아무런 역진 없이 '새벽-낮-저녁-밤' 이렇게 순차적으로 흐르고 있다. 어떠한 장식도 가미되지 않고 일상 자체가 화자의 눈에 보이는 순서대로 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화자의 시정 자체가 절대적 고독 속에 파묻혀 있다고 볼 수 있다.

林椿은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 하루 종일 길 위에 있지만, 그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오직 雪白, 峯靑, 風寒 등이다. 길 위에 사람이 없다. 景을 통한 情의 표출로 볼 수 있겠다. 화자의 시정이 이토록 고독하기에 그가 찾은 마을은 '寂寞孤村'일 수밖에 없으며, 尾聯의 後句처럼 '人家門戶早常扃' 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冬日途中>은 절대적 고독감이 승화된 작품이다.

策馬行行趁夕陽　　말 몰아 달리다가 석양이 가까워져
聊尋田舍解歸裝　　겨우 농삿집 찾아 여장을 풀어보네.
浮生浪迹身如寄　　부생은 흐르는 물결에 몸을 맡긴 것 같고
旅枕無眠夜更長　　나그네 베갠 잠잘 수 없어 밤은 길고 길구나.
雪灑園林花盡發　　눈 뿌린 원림엔 꽃 활짝 피었고
年豐村落酒猶香　　풍년든 촌락엔 술 오리려 향기롭다.
主人莫問何爲客　　주인은 묻지 마오 왜 나그네 가 됐느냐고
面色皆黎語亦鄕　　얼굴빛 다 검고 말 역시 촌스럽거니.

<冬日途中 三首(겨울철 길 가운데서 3수)>[103]

위의 詩는 <冬日途中> 세 수 중 세 번째 시이다. 눈꽃이 가득 핀 화려한 원림에서 여유롭게 좋은 술을 마시는 주인과 객의 모습이 눈에 떠오른다. 장식된 과거에 대한 향수가 짙게 드러나고 있다. 시가 논리적일 수 없지만, 그래야 尾聯 역시 해석이 자연스럽다. 미련에서 임춘은 "주인에게 왜 나그네가 됐냐고 묻지 마라." 하고 있다. 여기서 주인은 임춘 자신 일수도 있고, 세상일 수도 있다. 미련의 후구에서 '보이는 대로 인정하면 된다.'는 말에 깊은 회한이 보이고 있다.

103)『西河集』第1卷.

임춘의 <冬日途中>은 살펴본 바와 같이 유락의 정서가 잘 시화된 작품이다. 다음은 동일한 정서로 영남사를 제영한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曾聞圓嶠臨蒼濤　　원교산은 푸른 물결에 임했다고 하는데
樓閣玲瓏駕巨鼇　　영롱한 누각은 큰 자라 위에 있다지.
鼇傾海動群仙駭　　자라가 기울고 해파가 움직이면 군선들은 놀라서
茫茫失去一峯高　　망연자실 떠난 뒤 이 한 봉만 우뚝이 남았지.
飛來怳惚移於斯　　그것이 황홀히 이곳으로 옮긴 이후부터는
磅礴千古當古壕　　천고에 웅장한 저 모습 옛 구덩이에 맞추었네.
突起連空如疊玉　　돌연히 일어나서 허공과 연한 것은 옥 겹친 듯하고
百丈淸潭橫鴨綠　　백 길 맑은 못은 압록을 비꼈구나.
水泛桃花出洞中　　물에 뜬 도화는 동중에서 나오고
居人宛是秦餘俗　　주민들은 완연히 진나라 풍속 남아있네.
靑山影裏兩三家　　청산의 그늘 속에 두세 집이 보이는데
垂柳陰中千萬屋　　버드나무 그늘 속엔 천만가옥이로다.

<題嶺南寺(嶺南寺를 題함)>[104]

<題嶺南寺>를 嶺南寺의 경치를 仙境으로 比喩하고 別天地를 노래한 작품으로 볼 수도 있다. '蒼濤', '玲瓏', '疊玉', '桃花', '秦餘俗', '靑山' 등 도교적 색채가 강하고, 제영시의 일반적 특징인 景에 대한 묘사가 작품 전체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자인 임춘의 개인적 역사를 고려하면, 작품 속에서 유락의 한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임춘에게 영남사는 1구에서 10구까지 보이는 단순한 선경일 수만은 없다. 그러기에 '靑山影裏兩三家 垂柳陰中千萬屋'라고 작품을 마무리 하고 있다. 곧 이 작품에 묘사된 영남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천지가 아니라 세상과 유리된 별천지인 것이다. 세상과 유리된 공간에 대한 동경이 유락과 고독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104)『西河集』第2卷.

疏慵多是泥春天	게으른 이 몸 흔히 봄날에 취하는데
頻到香閨玉枕前	꿈이 자주 규방의 베개 앞을 찾는구려.
詩榻夜涼風斷送	시 짓는 자리 서늘한 밤 이 따끔 바람 불 때
倡樓日晏酒拘牽	노래하는 누각에 해 저물어 술이 거나 했도다.
一場曾把浮生比	깨고 나면 한바탕 바로 인생에 비할까
千里長將別恨傳	멀리 천년 밖에 이별의 한도 전 하누나.
更爲等閑拋世慮	세상일 던져두고 시름을 잊었으리
近來還繞舊林泉	이즘에 늘 감도는 곳은 옛 고향.

<詠夢(꿈을 읊다)>[105]

임춘이 동경하는 것은 시어 그 자체인 고향으로 보인다. 이 작품의 尾聯에는 나그네살이의 설움과 고독에 지친 한 시인이 보일뿐이다. 경련에 드러나 있듯이 세상살이는 한바탕의 꿈이기에 천년의 이별도 감내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유락과 고독의 정서가 잘 드러나 있다.

이상의 몇몇 작품에 드러나 있듯이 임춘의 작품 세계에는 유락과 고독의 정서가 승화되어 있다. 특히 그가 몸으로 체득한 이 정서는 작품 속에서 은유와 함축으로 장식되어 시적 아름다움을 구가하고 있다.

105)『西河集』第1卷.

Ⅵ. 結　　論

本 硏究는 西河 林椿이 高麗時代 武臣 政變期에 不遇하고 困窮하게 살았으며, 生命의 危脅과 家族의 生計를 위하여 逃避한 江南 流落期의 漢詩 硏究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西河 林椿의 生涯 및 文學觀, 詩의 世界를 그가 流落 定着한 醴泉, 尙州, 開寧, 妙光에서의 文學 活動으로 限定해서 考察하였다.

林椿의 避難 徑路는 開京에서 高麗時代 驛站制度가 活潑하고 交通便이 多少 容易한 廣州道와 秋風領을 잇는 길을 利用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尙州, 醴泉으로 移轉하였고 故鄕에서 굴모리 導水路 工事를 完了한 후, 尙州境內 開寧, 妙光으로 옮겨 定着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그의 生涯 중 流落期(1174~1181)에 해당하는 7年間의 流落地에서 그의 意識과 생활상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가난을 타개하고자 하는 意志와 宦路意識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의 文學觀에는 隱遁 指向的이 아닌 世俗 指向的이고, 積極的으로 事實을 드러냈던 부분들이 표현되었다. 여기에 가난 극복과 宦路進出을 圖謀하도록 많은 努力을 하였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가 고집스럽게 志向한 古文崇尙은 儒家의 家門에서 出生하여 經書를 읽었고, 大道 묻기를 좋아하였던 성격이 바탕을 이룬 것 같다. 그는 韓愈, 柳宗元에 심취하였다. 그래서 文弊에 대한 自覺과 當時의 支配的인 文學, 科擧文에 대한 反撥로 文風을 改造하고자 하는 意志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는 늘 詩經에 根本을 둔 樸實한 詩를 쓰고자 努力하였다. 이것은 眞實되고 率直하게 쓰고자 하는 作詩態度를 이루었다. 이것이 西河 林椿의 散文 古律詩 文風으로 이어져 科擧 실패의 한 原因을 提供한 것이기도 하다.

詩의 分析은 修辭學的인 接近을 避하고 詩 속에 含蓄되어 있는 西河의 心情을 把握하는데 重點을 두었다. 詩는 流落地의 交遊, 思惟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宦路進出의 强한 意志와 不遇하고 困窮한 處地의 안타까움, 流落地에서의 孤獨, 鄕愁 등으로 나타났다.

西河 林椿의 詩는 大部分 그의 意識의 흐름에 따른 個人的 狀況을 自己 告白的

方法으로 率直하게 表現하고 있다. 內容的으로 보면 그의 詩는 生涯와 對應關係를 이루고 있다. 一生을 不遇하게 生活하였기에 悲慘한 自身의 內的 感情을 率直하게 表現하고 있다. 形式的으로는 주로 古律詩를 쓰고 있다. 西河 林椿이 古文을 崇尙하여 聲律이나 字數에 얽매이지 않았다. 修飾이나 彫琢 등 華麗한 詩를 拒否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林椿 詩의 特徵은 散文性과 用事를 들 수 있다. 이것은 短點인 同時에 長點이기고 하다. 예를 들면, 虛辭와 接續語에 대한 散文語句와 한 句節의 글자 數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 또한 觀念과 事實이 散文的으로 記述된 形態로 直接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情緖, 事實의 表現에 間接的이고 形象化된 情緖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西河 林椿의 詩는 단조롭고 딱딱하다.

이것은 林椿의 詩風이 武臣亂 以前의 詩는 戰亂으로 消滅되어 알 수 없고, 武臣亂 以後의 詩는 生活苦에 따른 困窮한 環境에 執着하여 自己 高揚의 指向性이 稀薄했기 때문이다. 즉 抒情的 狀況을 설정치 못하고 形而上學的 省察을 가지지 못한 西河의 詩가 散文的이고 卽興的인 면모를 보인 것이다. 어릴 때부터 古文授業에서 얻은 知識의 活用과 적절한 故事의 引用으로 詩의 雰圍氣를 高照시키고 있다. 林椿은 自身의 感情을 率直히 表現한 文人이자 詩人으로 우리 漢文學史에 남았다.

西河 林椿의 流落地 尙州는 洛東江 本流와, 開寧, 妙光은 洛東江의 支流인 甘川과 禦侮川이 흐르는 典型的인 農村 고을이며, 嶺南의 선비가 開京으로 가는 科擧길목에서, 林椿은 당나귀를 利用한 交通手段과, 知人들과의 書信交換으로 隱遁이 아닌, 世上과 疏通하며 生活한 當代의 先覺者라 보아야 하겠다.

西河 林椿의 文集이 그의 死後 嶺南의 淸道 雲文寺에서 500餘年의 歲月을 지켜온 것과 참으로 奇異하게 發掘된 것처럼, 앞으로 林椿에 대한 硏究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西河의 발자취가 서린 開寧, 妙光 땅에 묻힌 妙光寺의 發掘도 이루어지고, 그에 관계된 硏究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參考文獻

▣ 資料

『高麗史』

『高麗史節要』

『東國李相國集』

『東文選』

『補閑集』

『西河集』

『新增東國輿地勝覽』

『破閑集』

▣ 著書

慶北大學校,『東輿備考』, 慶北大學校 出版部, 1998.

權泰乙,『김천예술』2집, 1992.

_____,『尙州漢文學』, 文昌社, 2002.

金庠基,『高麗時代史』, 서울대 출판부, 2006.

金子相 譯,『商山誌』, 尙州文化院, 2003.

金泉市,『金泉市史 (下)』, 金泉市史 編纂委員會, 1999.

金台俊,『朝鮮漢文學史』, 朝鮮語文學會, 1931.

박영규,『高麗王朝實錄』, 들녘, 1996.

徐首生,『高麗朝漢文學硏究』, 螢雪出版社, 1971.

石堂傳統文化硏究員,『譯註 西河集』, 東亞大學校 出版部, 1985.

宋起東,『김천의 마을과 전설』, 金泉文化院, 2010.

신유복 · 김광수,『牙浦邑誌』, 牙浦邑誌 編纂委員會, 2009.

醴泉郡,『醴泉郡誌』, 醴泉郡, 1987.

李佑成『韓國의 歷史像』, 創作과批評社, 1982.

秦星圭 譯註,『西河集』, 一誌社, 1984.

▣ 論文

高東槿, 「書簡에 나타난 林椿의 意識志向과 修辭的 特性」, 慶山大 大學院 碩士論文, 2003.

金乾坤,「林椿의 生涯와 漢詩 硏究」, 韓國精神文化硏究院 碩士論文, 1981.

金奉均,「開心寺址 五層石塔 記文 硏究」,『松園先生傘壽紀念論文集』, 1997.

金應煥,「林椿의詩 世界 考察」,『한양어문연구』제5집, 한국언어문화학회, 1987.

김현주, 「高麗 武人執權期 竹林高會의 成立과 性格」, 忠北大學校 敎育大學院 碩士論文, 2008.

孫政仁,「林椿의 散文性 漢詩의 性格과 의의」,『高麗中期 漢詩硏究』, 문창사, 1998.

宋秉烈,「擬人體 散文의 發達樣相」,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博士論文, 1997.

沈浩澤,「高麗中期 文學論 硏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博士論文, 1989.

安賢靜, 「林椿 文學의 思想的 傾向 硏究」, 釜山女子大學校 敎育大學院 碩士論文, 1997.

呂運弼,「林椿의 生涯에 대한 再檢討」,『한국한시연구』4, 한국한시학회, 1996.

柳廣眞,「林椿의 詩 硏究」,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論文, 1983.

尹用植,「西河 林椿 文學 硏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博士論文, 1992.

李桂松,「林椿의 意識 特性 硏究」, 慶熙大學校敎育大學院 碩士論文, 1997.

李東喆,「林椿 詩의 主題 硏究」,『광동대 논문집』, 제20집, 1992.

李東歡, 「高麗竹林高會硏究-傳奇的 考察을 中心으로-」, 高麗大學校 碩士論文, 1968.

_____,「林椿論-高麗 武臣執權下 文人知識層의 意識의 한 斷面」,『어문논집』19, 1977.

李在三,「西河 林椿의 詩世界 硏究」, 高麗大學校 敎育大學院 碩士論文, 2003.

林茂花,「林椿詩의 恨 硏究」, 安東大學校 大學院 碩士論文, 2003.

林鶴樹,「西河 林椿 硏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碩士論文, 1986.

秦星圭,「林椿의生涯와現實認識」,『韓國史硏究』45, 韓國史硏究會, 1984.

崔基燮,「西河 林椿의 文學攷」, 東國大學校 敎育大學院 碩士論文, 1986.

崔恩珍,「西河林椿의文學硏究」,『한문교육연구』7집, 한국한문교육학회, 1993.

許南郁,「竹林高會硏究」, 江原大學校 大學院 碩士論文, 1990.

洪聖杓,「武臣執政期 文學에 나타난 現實克服樣相」, 慶熙大學校 大學院 博士論文, 1991.